



**Dubrovnik Tourist Board Information Centres**  
 Info uredi Turističke zajednice grada Dubrovnika

FILE: Brašlje 5, tel/fax: +385 20 312 011  
 GRUŽ: Obala Pape Ivana Pavla II 1, tel/fax: +385 20 417 983  
 LAPAD: Masarykov put 2, tel/fax: +385 20 437 460

**Last minute accommodation Dubrovnik**

Available on iTunes and App Store

**CROATIA Full of life**

**DUBROVNIK**

Turistička zajednica grada Dubrovnika  
 Dubrovnik Tourist Board

Brašlje 5  
 HR - 20000 Dubrovnik  
 www.tzdubrovnik.hr  
 info@tzdubrovnik.hr  
 T +385 (0)20 323 887  
 F +385 (0)20 323 725



Turistička zajednica grada Dubrovnika  
 Dubrovnik Tourist Board



www.tzdubrovnik.hr



Turistička zajednica grada Dubrovnika  
 Dubrovnik Tourist Board



# 두브로브니크 리비에라 관광정보





# INDEX

4. 두브로브니크 역사에 대해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어떤 것	36. 소풍
6. 어떻게 갈까	40. 어디가 재미있을까
8.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까	41. 어디서 미사를 드릴까
11. 어디서 묵을까	41. 어디서 쇼핑을 할까
13. 어디서 먹을까	44. 어디서 수영을 할까
14. 두브로브니크 카드	45. 어디서 액티비티를 즐길까
15. 무엇을 볼까	47. 웰니스
25. 박물관	48. 아이를 위한 액티비티
32. 갤러리	50. 두브로브니크의 축제
34. 도시탈출	52. 안내



# BASIC CROATIAN

Good morning!	Dobro jutro!	도브로 유트로
Good afternoon!	Dobar dan!	도바르 단
Good evening!	Dobra večer!	도브라 베체르
Good night!	Laku noć!	라쿠 노치
Goodbye!	Dovidenja!	도비제냐
Good luck!	Sretno!	스레트노
Yes	Da	다
No	Ne	네
Excuse me	Oprostite	오프로스타테
Thank you	Hvala	흐발라
Please	Molim	몰림
My name is...	Zovem se....	조벵 세...
What is your name?	Kako se zovete?	카코 세 조베테?
Where is...	Gdje je...	그디예 예...
I don't speak Croatian	Ne govorim hrvatski	네 고보림 흐르바츠키

발행처: 두브로브니크관광청, 발행인: Romana Vlašić, 사진: Zoran Marinović, Darko Vrbica, Miho Skvrce, Martin Jarić, Dubrovnik Tourist Board, Dubrovnik Summer Festival archives, Dubravko Lenert, Mario Romulić, Ivan Dimnjaković, Katija Živković, 그래픽 디자인: Darko Vrbica mr.art, 그래픽 디자인: Orsat Franković, 감수: Nikica Dorešić, Croatia Consulting, PRINT: Alfa-2, Dubrovnik, January 2018.



면적:9,288.69km<sup>2</sup> (지면 1,780.86km<sup>2</sup>, 해면 7,509.83km<sup>2</sup>)  
 인구:122,870  
 중심도시:두브로브니크  
 국경:몬테네그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육-해상국경), 이탈리아(해상국경)  
 해안선 길이:1,024.63km

ADRIATIC SEA

# 두브로브니크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두브로브니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의 '도시'를 방문 중이시라면, 어디서, 어떻게, 언제, 무엇을...그리고 왜 두브로브니크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이 책자에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인 이곳이 가진 풍부한 역사, 문화, 오락, 스포츠, 쇼핑, 교외 여행, 그리고 식도락을 탐험하며 당신만의 답을 찾게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자에서 추천하는 것과 많은 정보를 통해, 당신의 두브로브니크 방문이 보다 더 흥미롭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경험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 두브로브니크 관광청이 운영하는 관광안내소(TIC, Tourist Information Center), 머물고 있는 호텔의 리셉션, 혹은 일반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두브로브니크 카드(Dubrovnik Card)를 준비하길 추천드립니다. 두브로브니크 카드는 온라인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며 ([www.dubrovnikcard.com](http://www.dubrovnikcard.com)), 성벽, 박물관, 갤러리 방문객에게 제공되는 할인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여정을 시작해보세요. 성벽 안에서 만들어진 역사와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의 일상을 가득가득 엮어가며 당신만의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 즐거운 여행이 되세요!

15세기가 넘는 긴 시간동안 쌓인 역사가 두브로브니크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어서 가끔씩은 울드타운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곧 활기 넘치는 오늘의 두브로브니크의 마주치게 될 것입니다.

울드타운의 위용있는 존재감은 도시를 둘러싼 중세 성벽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약 2킬로미터 길이의 성벽을 걷다보면, 성벽 안쪽으로는 울드타운의 인상적인 건물, 좁은 골목, 정원, 테라스가 내려다보이고, 그 반대편에는 이 도시 역사의 수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친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성벽을 따라 산책하는 것은 두브로브니크의 첫인상 만들기에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197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울드타운은 주요 문화적 거점으로 여겨지며, 수많은 문화행사와 축제 외에도 풍부하고 다양한 역사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곳은 여유롭게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며 깨끗하고 투명한 바다에 뛰어들기도 하고, 카페에 앉아 이곳에서의 시간이 흘러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 좁은 뒷골목의 식당에서 최고의 음식으로 허기진 배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두브로브니크는 정말로 매혹적인 도시입니다. 이 곳에서 자신만을 위한 어떤 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몇 번이고 두브로브니크를 다시 찾게하는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 Dubrovnik Ca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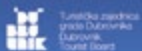
1 day



3 days



7 days



# 두브로브니크

## 역사에 대해서 당신이 꼭 알아야 할 어떤 것

역사학자들은 아직 정착지로서의 두브로브니크의 출현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약 2세기경 로마제국의 요새화 군사기지 카스트룸(Castrum), 혹은 5-6 세기의 거대 로마-비잔틴 제국의 바실리카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로 보아 군사요새의 형태 정착지가 최초로 형성된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적어도 두브로브니크는 1,600년이 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 것이다.

수 세기가 넘는 동안 굳건하며 꾸준했던 두브로브니크의 발전은 아드리아 해 동부 해안의 훌륭한 지리적 우세와 해상교통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했다. 15세기, 약 3000 척의 선박과 4000명이 넘는 선원으로 구성된 두브로브니크 상선단은 베니스 상선단과 함께 지중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했다.

반면, 영리한 외교와 인내의 협상으로 두브로브니크는 내륙 무역에서도 많은 이득을 확보했으며, 바다의 '세계'와 내륙 간의 운송에 있어서도 중개인 역할을 하며 도시는 끊임없이, 그리고 빠르게 부를 축척했다.

영역에 있어서도, 두브로브니크는 스스로 10세기에 '독립적 행정지역'으로 선언하고, 수백년 후에는 독립공화국의 지위를 가졌다. 이는 1808년 유럽의 정세 (나폴레옹 정복전쟁)로 나라가 쇠퇴할 때까지 유지하였다.

공화국의 지도자로는 렉터(Rector, 그런 이유로 렉터의 궁)가 있었고, 두브로브니크 귀족가문 모임의 투표로 선발된 세 개의 위원회로 정부가 구성되었다. 일반 국민에게 투표권은 없었지만, 모두에게 평등하였으며, 지도자는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또한 국민 모두 최저 생활 수준과 안전을 보장 받았다.





건물, 성벽, 공공행정기관, 의료 서비스 (13세기), 하수도 체계 (14세기), 상수도 (15세기), 세계 최초의 검역소 (14세기),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시설 (15세기) 외에도 두브로브니크공화국은 모든 종류의 예술 활동을 후원하였다. 1106년에 제작되어 현재 가장 오랫동안 보존되고 있는 악보는 프란체스코 수도원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이 약국 역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약국 세 곳 중 한 곳으로 1317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두브로브니크의 문학 역시 크로아티아 문학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행정부가 지역출신 작가에게 위임하여 만든, 오늘날 오페라 형태의 공개 야외 공연이 1552년 정부행정건물 앞에서 최초로 무대에 올랐다.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두브로브니크 공연이 같은 해에 시작되었다고 여겨지며, 광장에서 열린 야외 연극 공연과 음악 공연이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두브로브니크 여름 축제의 시초로 간주된다.



크로아티아 공화국의 독립선언 이후, 크로아티아 영토를 향한 세르비아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1991년 10월, 두브로브니크도 공격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는 전례없는 파괴력으로 이 지역을 정복하거나 무너뜨려버렸다. 올드타운과 주변지역 몇 곳을 제외한 두브로브니크 대부분의 지역이 모두 점령되어 약탈당하고 또 몹시 황폐해졌다. 약 21,000명의 피난민은 8개월의 긴 포위기간동안 물과 전기공급이 끊긴 채로 올드타운에서만 지내야 했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쏟아지는 포격과 극한의 공포에 시달려야만 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정신력을 증명하듯이 모두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이 영웅적인 방어는 크로아티아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게 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



# 어떻게 갈까

## 항공

두브로브니크 공항은 올드타운에서 20km 정도 떨어져있다. 모든 도착항공편의 시간에 맞추어 운행되는 버스를 타면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두브로브니크까지 이동할 수 있다. 출발항공편을 이용할 때에는 국내선 이용객은 그루즈(Gruž) 터미널에서 비행기 출발시간 1시간 반 전에, 국제선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비행기 출발시간 2시간 전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면 된다. 택시는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다.

## 승용차

두브로브니크와 올드타운으로 향하는 길목에 주유소가 있다. 그 중 몇 곳은 24시간 운영되며 그 위치는 안내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차

자가용으로 올드타운을 방문 예정이라면, 일리이나 글라비차(Ilijina Glavica, 주소: Zagrebačka ulica bb) 공용주차장 이용을 추천한다. 24시간 운영되는 이 주차장은 711대의 차량 수용이 가능하며, 보기시치 공원(Bogišić Park) 이나 페로부드마니 거리(Pero Budmani Street)를 이용하면 도보로 단 5분만에 올드타운까지 도착할 수 있다.

노상주차가 가능한 곳은 표지판으로 찾을 수 있으며, 주차비 결제 방법과 시간당 주차비용이 표지판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주차비는 키오스크에서 주차권을 구매하거나 주차미터기를 통해 지불할 수 있다. 주차권은 정확한 정보를 기입해야 하며, 자동차 전면유리를 통해 주차권이 잘 보이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주차기기에서는 거스름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주차시간만큼 필요한 잔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제한된 시간제 주차외에도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자동차 전면 유리를 통해 주차권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루즈 항구의 공용주차장(주소: Obala pape Ivana Pavla II 1)도 24시간 운용된다.

주차정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http://www.sanitat.hr/en/>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트

두브로브니크는 크로아티아 국내의 여러 항구와 이탈리아, 바리(Bari) 간의 페리, 여객선이 잘 연결되어 있다. 그 외에도 두브로브니크 근교의 섬(코로체프, 로푸드, 시판, 물레트, 그리고 계절에 따라 운행되는 코르츨라와 라스토보)을 이어주는 정기선도 있다. 그루즈 항구는 올드타운에서 3km, 도보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처에는 야드롤리니야 페리(Jadrolinija) 매표소, 은행, ATM, 환전소, 주차장, 식료품점, 슈퍼마켓, 스키지(Srd) 백화점, 야외시장, 페트카 호텔(Hotel Petka), 여행사, 렌터카, 식당과 카페, 그리고 두브로브니크 관광청 안내사무소가 있다. 1a, 1b, 1c, 3, 8의 오렌지색 시내버스를 타면 올드타운까지 10분 정도 소요되며, 버스티켓은 버스 운전기사에게 15 쿠나로 구입하거나 키오스크에서 12쿠나에 구입할 수 있다. 택시정류장도 항구와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다.

## 버스

두브로브니크 버스터미널은 항구가 있는 그루즈에 위치하고 있다. 관광정보센터나 매표소 외에도 짐보관소, 택시정류장, 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다. 국제버스 뿐만 아니라 크로아티아의 주요 도시로 가는 버스가 매일 이곳에서 출발하며, 다수의 시내버스 노선이 버스터미널에 정차한다.



#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까.

## 시내버스



두브로브니크를 여행할 때에는 시내버스를 이용할 것을 추천한다. 리베리타스 운수회사(Libertas Public Transport Company)에서 운행하는 냉난방버스로 쾌적하게 도시를 둘러볼 수 있다. 두브로브니크를 대표하는 오렌지 색의 버스는 어디서든 눈에 잘 띈다. 다양한 노선으로 도시의 모든 구역이 잘 연결되어 있으며, 운행간격도 짧아 이용이 편리하다. 버스시간표는 모든 버스정류장에 표시되어 있지만, 두브로브니크 관광청 안내소, 호텔 리셉션, 혹은 온라인([www.libertasdubrovnik.hr](http://www.libertasdubrovnik.hr)) 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버스표는 운전기사에게 직접 구입할 수도 있고 (15쿠나), 키오스크나 필레 게이트의 리베리타스 운수회사 매표소, 모코시차(Mokošica)의 버스터미널, 호텔리셉션, 여행사 등에서 12쿠나에 구입할 수 있다.

버스에서 버스표를 구입할 때에는 운전기사가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으므로, 인원 수에 맞는 잔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최초 탑승시 등록된 시간으로부터 1시간 동안은 시내버스를 탑승횟수에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버스의 1일 이용권은 30쿠나이다.

마그네틱형의 버스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그네틱 띠를 앞쪽으로 한 다음 버스 앞쪽에 있는 기기에 세워서 넣고 다시 나온 표는 보관한다. 다른 종류의 버스표는 간단히 기기에 카드를 갖다대면 된다.

## 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보트 대여



두브로브니크의 많은 여행사가 대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자동차 외에도 스쿠터, 자전거, 그리고 보트를 빌릴 수도 있다. 운송수단을 대여하면 두브로브니크 뿐만 아니라 주변도시까지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 편리하다. 대여시에는 신용카드와 운전면허증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50cc 이상의 오토바이를 대여할 때에는 카테고리 A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보트를 대여할 때에는 오토조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 택시



택시정류장은 시내의 주요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정류장은 표지판으로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택시비에 대해서도 잘 안내되어 있다. 택시미터기는 택시가 출발한 직후에 작동되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 승객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 대부분의 택시는 최대 4인까지 탑승이 가능하다. 택시 서비스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택시운전사에게서 유효한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받아 택시 차량번호와 함께 불만사항을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다. 두브로브니크에는 세 곳의 택시회사가 있기 때문에 불만사항을 접수 시, 본인이 탑승한 택시회사명의 연락처가 맞는지 잘 확인해야 한다. 택시를 이용한 두브로브니크와 주변지역 여행은 색다른 추억을 선사한다. 택시투어는 보통 그루즈 항구의 전경이 보이는 다리를 지나거나, 라파드(Lapad), 두브로바츠키 리예카 지역(The Rijeka Dubrovačka) 그리고 주변 섬을 포함한다. 아드리아 국도(Adriatic Highway)를 따라가며 펼쳐지는 도시의 전경을 감상할 수도 있고, 스크지 산 (415m)에 올라 올드타운과 두브로브니크 전체지역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도 있다.

그 외에도 택시를 이용해서 두브로브니크 주변 도시를 돌아보는 일일투어 혹은 반나절투어도 가능하다.(플라비택시두브로브니크).



# CITY BUS LINES MAP PLAN AUTOBUSNIH LINIJA



- 1** **OBNOVA VEŠTAČENJE O SVETLOŠĆI I PROMETU**  
REKONSTRUKCIJA PROMETA U PROMETU
- 2** **POSREDOVANJE U PROMETU NEKRETNIM PRAVNIM PREDMETIMA**  
POSREDOVANJE U PROMETU NEKRETNIM PRAVNIM PREDMETIMA
- 3** **POSREDOVANJE U PROMETU NEKRETNIM PRAVNIM PREDMETIMA**  
POSREDOVANJE U PROMETU NEKRETNIM PRAVNIM PREDMETIMA
- 4** **POSREDOVANJE U PROMETU NEKRETNIM PRAVNIM PREDMETIMA**  
POSREDOVANJE U PROMETU NEKRETNIM PRAVNIM PREDMETIMA
- 5** **POSREDOVANJE U PROMETU NEKRETNIM PRAVNIM PREDMETIMA**  
POSREDOVANJE U PROMETU NEKRETNIM PRAVNIM PREDMETIMA
- 6** **POSREDOVANJE U PROMETU NEKRETNIM PRAVNIM PREDMETIMA**  
POSREDOVANJE U PROMETU NEKRETNIM PRAVNIM PREDMETIMA
- 7** **POSREDOVANJE U PROMETU NEKRETNIM PRAVNIM PREDMETIMA**  
POSREDOVANJE U PROMETU NEKRETNIM PRAVNIM PREDMETIMA
- 8** **POSREDOVANJE U PROMETU NEKRETNIM PRAVNIM PREDMETIMA**  
POSREDOVANJE U PROMETU NEKRETNIM PRAVNIM PREDMETIMA
- 9** **POSREDOVANJE U PROMETU NEKRETNIM PRAVNIM PREDMETIMA**  
POSREDOVANJE U PROMETU NEKRETNIM PRAVNIM PREDMETIMA
- 10** **POSREDOVANJE U PROMETU NEKRETNIM PRAVNIM PREDMETIMA**  
POSREDOVANJE U PROMETU NEKRETNIM PRAVNIM PREDMETIMA
- 11** **POSREDOVANJE U PROMETU NEKRETNIM PRAVNIM PREDMETIMA**  
POSREDOVANJE U PROMETU NEKRETNIM PRAVNIM PREDMETIMA

**15,00 HRK**



**LIBERTAS - DUBROVNIK d.o.o.**

MOKOŠICA 61, 20000 DUBROVNIK  
 T: 020 326 1000  
 F: 020 326 1001  
 E: info@libertasdubrovnik.hr  
 www.libertasdubrovnik.hr

- AUTOBUSNE POSTAJE  
BUS STOP
- POLAZNE POSTAJE  
DEPARTURE BUS STOP
- HOTELI  
HOTELS
- AUTOBUSNI KOLODVOR  
CENTRAL BUS STATION
- LUKA GRUŽ  
PORT GRUŽ

<b>1abc</b>	MOKOŠICA - PILE		<b>5</b>	VIKTORIJA - BABIN KUK	
<b>2</b>	GORICA - PILE		<b>6</b>	BABIN KUK - PILE	
<b>2a</b>	GLAVICA B.E. - SOLITUDO - PILE		<b>7</b>	KANTARIG - BABIN KUK	
<b>3</b>	MOKOŠICA - PILE		<b>8</b>	VIKTORIJA - GRUŽ	
<b>4</b>	HOTEL PALACE - PILE		<b>9</b>	OPĆA BOLNICA - PILE	
			<b>17</b>	BOSANKA - PILE	

## 로크룸 여객선



올드타운의 항구에서 자연보호지역인 로크룸 섬(Lokrum)의 포르토츠 만(Portoč)까지 운행하는 유람선은 성수기에는 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운항시간은 약 10분 정도로, 티켓은 부두에 정박중인 유람선 옆의 스탠드에서 구입할 수 있다. ([www.lokrum.hr](http://www.lokrum.hr))

기상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엘라피티 군도 여객선



콜로체프(Koločep), 로푸드(Lopud), 쉬판(Šipan) 섬이 있는 엘라피티 군도(Elaphite)로 가는 유람선은 그루즈 항구에서 출발한다. 운항일정은 부두 가까이에 있는 야드롤리야나 사무실, 두브로브니크 관광청 안내소, 혹은 온라인([www.jadrolinija.hr](http://www.jadrolinija.h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방문객만 탑승할 수 있는 페리는 하루에 4회 운행되고, 차를 실을 수 있는 카페리는 하루에 1-2회 운행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운항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 믈레트 여객선



믈레트 섬(Mljet)까지는 쾌속여객선, 노나 아나(Nona Ana)가 운행된다. 여객선은 소브라(Sobra), 성수기에는 믈레트 자연공원 근처의 폴라체(Polače)까지 운행되며, 7~8월에는 코르츨라(Korčula)와 라스토보(Lastovo)까지도 운항한다. 더 자세한 정보는 G&V 라인 여행사의 홈페이지 ([www.gv-line.hr](http://www.gv-line.hr))에서 제공된다.

야드롤리야나 카페리는 소브라에서 펠레샤츠 반도(Pelješac)의 프라프라트노(Prapratno)까지 연중 운항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jadrolinija.hr](http://www.jadrolinija.h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믈레트-코르츨라-흐바르-스플리트 여객선



쾌속여객선, 크릴로 스타(Krilo Star)와 크릴로 이클립스(Krilo Eclipse)는 5월~10월에는 주 3~4회, 성수기에는 매일 그루지에서 출발한다. 티켓은 온라인(<http://www.krilo.hr>)이나 시내 여행사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야드롤리야나도 6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두브로브니크에서 코르츨라-흐바르-브라치-스플리트까지 운항하는 쾌속여객선을 운행한다.



# 어디서 묵을까

위치와 기호에 따라 캠핑과 민박에서부터 5성급의 고급호텔까지 두브로브니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숙박을 선택할 때에는 자신에게 맞는 지역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 호텔

크로아티아의 어느 지역처럼 두브로브니크의 호텔도 2성급에서 특5성급까지의 호텔이 있다. 두브로브니크의 호텔은 크로아티아에서도 특히나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데, 국내에서 가장 좋다고 알려진 호텔도 이곳에서 여럿 찾아볼 수 있다. 고급 스위트룸에서 그 아래 성급의 호텔, 유스호스텔까지 어느 곳을 선택하더라도 친절한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 민박

두브로브니크에는 많은 수의 별장, 아파트먼트, 민박 등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숙박시설에서는 저렴한 가격 외에도 현지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민박형태에 따라 주인과 함께 지내는 경우에는 친척집에 놀러온 듯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독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생활을 보장받으며 호스트로부터 보다 독립적일 수 있다. 민박에 대한 정보는 여행사나 인터넷 예약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그 외에도 'Last minute Dubrovnik'라는 앱을 통해 쉽게 민박 예약이 가능하다.

두브로브니크 관광청 안내소에서는 민박예약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지만, 관광청 홈페이지에서 민박업체의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http://www.tzdubrovnik.hr/lang/en/news/ad\\_smjestaj/index.html](http://www.tzdubrovnik.hr/lang/en/news/ad_smjestaj/index.html))

## 주의사항

**본인이 체류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체류신고는 보통 민박업주가 관련기관에 신고하며, 숙박비에 체류세가 포함되어 있다. 체류세법과 외국인법에 따라 크로아티아 국민과 외국인 구별없이 의무적으로 체류세가 부과된다. 체류신고는 방문객의 이익과 안전, 양질의 숙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자관리소에 신고할 수 있다. (+385 20 351 048)

## 캠핑카

자연을 즐기고 싶은 여행객이라면 두브로브니크 해안가 근처의 작은 리조트나 라파드의 솔리투도 캠핑장(Solitudo)을 추천한다. 녹음이 짙은 이 지역에는 해변과 호텔, 그리고 산책로가 준비하고 올드타운까지는 버스로 15분이 걸린다. 카라반이나 캠핑카는 그루즈 항구 근처의 주차장에서만 주차가 가능하며, 시간당 혹은 1일 주차비용을 내고 이용할 수 있다.

## 주의사항

허가받은 캠핑장이나 주차장 밖의 캠핑, 주차는 불법이며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주차장이나 길가에서 캠핑을 하는 것도 두브로브니크에서 금지되어 있다.

## 요트

두브로브니크 지역의 아름다운 섬, 해변, 바다는 당신의 눈을 멀게할 만큼 아름답다.

바다를 좋아하고 요트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이곳이 바로 완벽한 휴가를 위한 장소가 될 것이다. 단순히 요트타고 넓은 바다를 항해하고 탐험하거나, 두브로브니크의 바다 위에서 연중 열리는 수많은 레가타에 참가할 수도 있다. 격렬한 항해 후에는 모든 것을 갖춘 마리나의 정박지에 들러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다음 여정을 위한 식수나 연료, 식료품을 보충하거나, 정비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리예카 두브로바츠카 (코모라츠, Komolac)에 있는 두브로브니크 ACI 마리나는 연중 운영된다. 그루즈 항구 입구에서 2km, 올드타운에서는 6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380척 수용의 해상계류장, 140척 수용의 육상계류장을 보유하고 있다. 마리나에서 올드타운까지 시내버스 노선이 잘 연결 되어 있다.

주의: 크로아티아의 영해로 입국하는 선박의 선장은 최단거리 항로를 이용하여 가장 가까운 지정항구로 입항, 출입국관리 및 항해비용과 관련세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그루즈 항구의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연중 운영되며, 성수기에는 차브타트(Cavtat)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추가로 운영된다.

그루지 항구에는 대형요트가 정박할 수 있는 계류장의 수가 적으며, 오르산 세일링클럽(Orsan Sailing Club)의 계류장은 클럽회원만 사용할 수 있지만, 클럽 내의 INA 주유소는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 어디서 먹을까

도시의 가장 중심, 시장에서 현지인들이 매일 먹는 음식재료를 찾아 맛을 보자. 올리브오일이 뿌려진 간단하고 건강한 두브로브니크의 음식은 단순한 양념만을 사용해서 재료 본연의 맛에 보다 집중한다.

현지 시장을 방문한 유명셰프도 주파 두브로바츠카(Župa Dubrovačka), 코나블레(Konavle), 프리모레(Primorje)와 같은 주변도시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식재료를 극찬하기도 했다.

아티초크, 가지, 아스파라거스, 누에콩, 호박, 호박꽃, 다양한 종류의 배추 등의 채소와 석류, 멜론, 무화과, 자두 그리고 이 지역 특산품인 크리바야 포도(krivaja)까지. 비옥한 땅에서 좋은 햇빛을 받으며 자라난 풍부한 식재료 중에서 마음어드는 채소와 과일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

현지식의 식당에 가면 크로아티아 대표 음식을 비롯하여, 스모크 햄, 오일에 담긴 치즈, 문어샐러드, 젤레나 메네스트라(zelena menestra, 양념훈제한 고기와 캐비지스튜), 스포르치 마카로니 (šporke makarule, 송아지고기와 양념을 오랫동안 끓여 만든 스투), 튀긴 청어와 구운 정어리요리 등을 맛볼 수 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창의적인 젊은 셰프의 식당에서는 아드리아 바다에서 갓 잡아올린 신선한 최고급 해산물과 세계적으로 유명한 말리스톤(Mali Ston)의 굴, 그리고 다양한 고기 요리를 차려낸다. 최근 두브로브니크의 요리계는 유럽에서 경험을 쌓은 젊은 요리사들이 전통요리에 새로운 해석을 도입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이다. 퓨전요리와 한국, 보스니아, 이탈리아, 인도, 일본, 멕시코, 타이 등의 외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 등이 울드타운 뿐만 아니라 주변도시에도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두브로브니크 최고의 맛은 ‘알 프레스코(al fresco)’에서 경험할 수 있다. 아름다운 테라스, 로맨틱한 인테리어, 잔잔한 라이브음악아래 훌륭한 맛의 크로아티아 와인까지 곁들인다면 더할나위 없다. 와인바 역시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크로아티아티식 타파스와 함께 특별한 크로아티아의 레드와인, 화이트와인을 맛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다.

펠레샤츠 반도의 레드와인을 포함하여 플라바츠 말리(Plavac Mali)와 코르쉴라의 포시프(Pošip), ‘신의 음료’의 전설을 가진 말바시아(Malvasia) 화이트와인이 두브로브니크 지역에서 가장 잘 알려져있다. 그 외에도 남부의 지역색을 가진 코나블레 지역(Konavle)의 와인도 유명하다.

관광청 홈페이지에서는 연중 열리는 미식행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10월 말에 열리는 두브로브니크 굿푸드 페스티벌이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 두브로브니크 카드

두브로브니크 카드는 두브로브니크와 차브타트의 주요관광지 방문에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수많은 할인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두브로브니크 방문기간에 따라 3가지 종류, 1DAY, 3DAY, 혹은 7DAY 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 1DAY 카드는 두브로브니크 주요 문화-역사 유적지 9곳의 입장이 가능하고, 3DAY, 7DAY 카드는 9곳의 주요 문화-역사 유적지와 차브타트의 박물관 1곳의 입장이 추가로 가능하다.

두브로브니크 카드를 구입하면 두브로브니크 시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카드도 함께 얻을 수 있는데, 3DAY, 7DAY 카드를 구입하면 시외로 가는 교통수단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두브로브니크 카드를 제시하면 지정된 식당, 가게, 기념품샵, 주얼리샵, 여행사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두브로브니크 파트너 카드)



# 무엇을 볼까

역사적, 건축학적, 문화적으로 엄청난 가치를 가진 것이 올드타운의 성벽 안에 가득하다. 경건한 마을과 호기심을 안고 스트라둔 대로와 미로 같은 좁은 길을 걷다보면 마치 과거 속의 한 장면을 거닐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된다. 그 와중에 마주치는 달달한 아이스크림과 커피 한 잔이 매우 반가울지도 모른다.

## 성벽과 요새

올드타운의 성벽은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장소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성벽은 유럽에서 가장 잘 보존된 방어체계 중의 하나로, 1940m의 길이의 성벽, 5개의 보루, 16개의 탑과 성루로 구성되어 있다. 동쪽의 성루크 성당 옆(도미니크 성당 맞은 편), 구세주 성당 옆(오노프리오 분수 맞은 편), 성 요한 보루의 해양박물관 옆, 세 곳의 입구를 통해 성벽으로 올라갈 수 있다.

성벽 위를 걷다보면 매우 인상적인 건축물과 마주치게 된다. 민체타, 보카르, 성 요한 보루는 성벽의 구조를 이루는 필수적인 부분이며, 나머지 서쪽의 로브리예나츠 보루, 동쪽의 레벨린 보루는 성벽과 분리되어 올드타운의 방어체계를 완성한다. 올드타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민체타 보루(Fortress Minčeta)는 북부에서 쳐들어오는 적으로부터 두브로브니크를 지키는 역할을 하며 두브로브니크 수비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보루의 꼭대기에는 크로아티아의 국기가 항상 게양되는데, 여름이면 리베르타스(Libertas) 기와 두브로브니크 여름축제 기가 더해진다. 남서쪽의 보카르 보루(Fortress Bokar)는 즈베즈단(Zvezdan)이라고도 불린다. 성벽의 코너 쪽에 위치하여 로브리예나츠 보루와 만(灣)을 건너 마주보고 서있다. 올드타운 서편의 작은항구, 성벽 주변의 해자(壕子), 그리고 필레게이트의 방어를 목적으로 16세기에 건설되었다. 보카르는 오늘날 두브로브니크 지역에서 발견된 석조유물의 조각 등을 전시하고 있다. 1346년, 방파제 위에 지어진 성 요한 보루(St John's Fortress)는 사각의 형태가 있는 최초의 보루로 남동쪽으로부터 올드포트를 방어하기 위해 세워졌다. 밤에 몰래 침입자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입구쪽에 쇠사슬이 설치되었는데 보루 내부의 원치로만 통제할 수 있었다. 현재는 1층에 아쿠아리움이 있고, 2,3층에는 해양박물관이 있다. 성 요한 보루에서는 포르포렐라(Porpořella)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빨간 가로등이 있는 방파제로 이어진다. 옛날부터 연인들의 밀회장소이기도 했던 방파제는 오늘날에는 올드타운 주민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산책로이자 수영을 즐기는 장소가 되었다. 포르포렐라에서는 올드타운의 동쪽입구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있는 레벨린 보루(Fortress Revelin)가 보인다.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도개교로 내륙과 연결되며, 다른 쪽의 석조다리는 올드타운과 이어진다. 삼면은 해자로 싸여있고, 나머지 한 면은 바다가 펼쳐져 있어 레블린은 그야말로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 수 있다. 이런 시기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지금의 형태와 규모는 16세기에 완성된 것이다. 레블린 내부와 테라스는 오늘날 두브로브니크 심포니오케스트라와 두브로브니크 여름축제의 무대가 되기도 한다. 또한 좋은 음악과 함께 신나는 밤을 즐길 수 있는 세계적 명성의 컬처클럽 레블린도 이곳에 있다.





## 성 로렌스 보루 (로브리예나츠)

로브리예나츠 보루(Lovrjenac)는 올드타운의 서쪽, 37m 높이의 바위 위에 자리잡고 있다. 두브로브니크의 생존과 자유의 상징인 로브리예나츠는 바다에서의 공격으로부터 올드타운 수비와 서쪽의 필레게이트의 방어목적으로 세워졌다. 로브리예나츠의 입구에는 'NON BENE PRO TOTO LIBERTAS VENDITUR AURO (자유는 세상에 있는 모든 금으로도 살 수가 없다.)' 라는 유명한 문구가 새겨져 있다.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건설된 것으로 인정되지만, 로브리예나츠에 관한 공식적인 기록은 1301년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오늘날 로브리예나츠는 두브로브니크 여름축제의 메인 무대로, 특히 셰익스피어의 햄릿 공연에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무대로 알려져있다. 많은 세계적인 명배우들이 불행한 덴마크 왕자 역으로 이 무대에 올랐는데, 대표적으로 라데 세르베드지야(Rade Šerbedžija), 다니엘 데이 루이스(Daniel Day Lewis), 데렉 야코비(Derek Jacobi)와 고란 비슈니치(Goran Visnjic)가 있다.



## 스트라둔 (오노프리오 분수, 올란도, 종탑과 그린맨, 렉터궁, 스폰자)

수 세기 동안, 과거의 올드타운은 두개의 성문으로만 (동쪽의 플로체게이드, 서쪽의 필레게이드, 세번째 북쪽의 출입구는 19세기에 추가되었다.) 출입이 가능했는데, 보안을 위해 밤에는 도개교를 이용하여 성문을 닫았다. 두 성문은 플라차(Placa), 혹은 스트라둔(Stradun)으로 불리는 거리로 이어진다. 올드타운에서 내에서 가장 넓은 개방공간이자 산책로이며 주민들의 만남의 장소이기도 하다. 올드타운의 메인 쇼핑지역이면서 두브로브니크를 대표하는 축제나 퍼레이드가 열리는 주요 무대이기도 하다. 올드타운에서 가장 넓고 아름다운 거리인 스트라둔을 기준으로 올드타운은 북쪽 구역과 남쪽 구역으로 나뉜다. 본래 11세기의 스트라둔은 지금처럼 거리가 아닌 얇은 바다가 지나가는 운하로 라베반도(Lave) 거주지역과 본토 거주지역을 구분지었다가 이후 이를 덮어 대로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12세기 후반, 성벽이 세워지고 두개의 거주지는 하나의 도심지구로 합쳐지게 되면서, 스트라둔이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 플라차대로는 오늘날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플라차라는 이름은 공공개방공간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platea communis" 에서 유래되었고, 플라차의 애칭, 스트라둔은 '넓은 길'이라는 뜻의 베네치아 어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진다. 스트라둔의 서쪽 끝에는 오노프리오



대분수(The Big Onofrio Fountain)가 있다. 오노프리오 분수의 이름은 1438년, 11.7km 길이의 두브로브니크 상수도시설을 설계한 건축가이자 작가였던 오노프리오 델라 차바(Onofrio della Cava)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 스트라둔의 반대쪽, 종탑 근처의 오노프리오 소분수 역시 동일한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었다. 한여름 뜨겁게 달궈진 스트라둔의 끝, 종탑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며 두 분수에서 흘러나오는 깨끗하고 시원한 물로 더위를 식히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도 없을 듯하다.

31m 높이의 종탑(Bell Tower)은 1444년에 건설되었다. 1509년 당시 유명했던 피에솔로(Fiesolo) 출신의 주물공, 미첼레 디 지오반니(Michele di Giovanni)가 큰 종과 두 개의 청동 군인상을 주조했다. 바로와 마로(Baro and Maro)라는 별명을 가진 이 군인상은 두브로브니크 그린맨(The Dubrovnik



Green Men, Zelenci)으로 알려져있기도 하다. 그린맨의 임무는 매 시간에 종을 쳐서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일이다. 정각에 종을 치고 3분 후에 반복되며 그 후, 매 30분마다 한번씩의 종을 울려 주민들이 시간을 알 수 있었다. 종탑과 스포자 궁 사이, 게이트의 위에 루자(Luža)라는 공간이 있는데, 정부 의회를 시작을 이곳의 종을 쳐서 알리기도 했고, 도시에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에도 이곳에서 종을 쳐서 주민들에게 알렸다. 1463년에 만들어진 루자는 1952년에 재건축 되었다. 스포자 궁(Sponza Palace)은 루자의 왼쪽의 고딕-르네상스 양식건물로 그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어 원래의 모습을 오늘날까지 지켜오고 있다. 두브로브니크 공화국 시절에는 기록보관소, 세관으로 사용되면서 '디보나(Divona)'라 불리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스포자 궁은 두브로브니크 시의 기록보관소로 사용되고 있다. 12세기부터 두브로브니크 공화국의 마지막이 기록된 문서가 모두 보관되어 있어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다. 특히 1272년의 두브로브니크 공화국의 법령과 오스만 제국의 통치기간의 회귀 문서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라자 광장의 올란도 기둥에는 십자군 전쟁의 영웅이었던 한 중세기사가 검을 들고 있는 동상이 있다. 구불거리는 머리카락과 열린 미소를 가진 고딕양식의 이 조각상은 유럽의 올란도 동상 중 가장 잘생긴 동상으로 알려져있기도 하다. 1418년에 만들어진 계약서에 따르면, 이 기둥은 밀라노의



장인, 보니노가 디자인 하였고, 두브로브니크의 명인들의 도움으로 조각 및 조립되었다고 전해진다. 공화국의 독립적 지위의 상징인 올란드 기둥 위에는 두브로브니크 공화국의 깃발이 꽂혀 있었다. 오늘날에는 크로아티아의 국기, 축제기간에는 성 블라이세의 기, 그리고 두브로브니크 여름축제기가 축제기간 45일동안 게양된다.

## 성당과 수도원 (성 블라이세, 프란체스코 수도원, 대성당, 세인트세비어, 도미니크 수도원)

올란드의 동상 뒤로 두브로브니크의 수호성인 성 블라이세(Saint Blaise)에 헌정된 바로크양식의 성당이 있다. 베네치아의 명인, 마리노 그로펠리(Marino Gropelli)가 설계하여 1715년에 완성한 이 성당은 같은 성인에게 모셨던 로마네스크 양식의 교회가 있던 자리 위에 세워졌다. 성당 중앙 제단



위, 성 블라이세의 15세기 고딕양식의 동상은 두브로브니크의 금세공 학교의 작품이다. 이 성당은 그 외에도 중요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데, 성인의 왼손에 들려있는 올드타운은 1667년 대지진 이전의 올드타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은 규모의 구세주 성당은 스트라둔의 서쪽 끝, 오노프리오 대분수의 맞은 편에 있다. 지진에도 신의 가호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에 감사하는 의미로 시의회에서 건설을 결정한 후, 1520년에 완공되었다. 성당의 벽면의 명판에 이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코르츨라의 건축가, 페타르 안드리지치(Petar Andrijić)에 의해 건설된 이 성당은 1667년의 대지진에도 전혀 손상되지 않았다. 본래의 형태가 현재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이 성당은 두브로브니크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성당의 내부는 콘서트나 전시회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1317년 프란체스코 수도원 내에 만들어진 약국은 그 역사적인 기록이 많지 않은 편이다. 처음에는 수사들을 위한 약국으로 프란체스코 교단만을 위해서만 운영되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인도적 혹은 자선의 목적으로 개방을 시작하면서 이후에는 공공서비스로 그 역할이 확대되었다. 1317년에 처음 문을 열어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약국 중의 하나가 되었다. 오래된 제조법으로 만든 수제화장품을 포함해서 다양한 약국의 상품이 관광객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수도원의 아케이드에 볼 수 있는 여러 기둥의 머리부분에는 로마네스크 양식의 동물우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구세군성당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이 수도원 내부에는 그림 같은 르네상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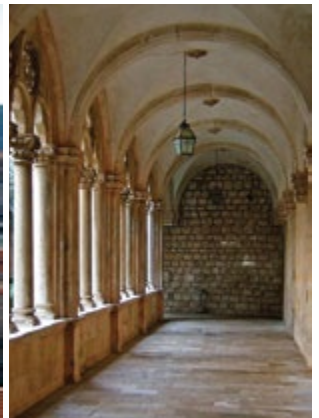


스타일의 홀과 음악기록보관소, 서재, 그리고 다양한 금은 세공품 등을 볼 수 있다.

두브로브니크 성모승천대성당의 현재의 모습은 18세기 초의 것으로, 이전의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은 조각상으로 장식된 큐폴라(돔)가 있는 화려한 모습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설에는 제3차 십자군전쟁 때, 영국으로 돌아가던 중 폭풍우를 만나 로크룸 근처를 표류하던 사자심왕 리처드 1세가 자신을 구해준 두브로브니크 사람들에게 감사의 의미로 큰 돈을 기부하였고, 그 돈으로 두브로브니크 성당이 건설되었다고 전해진다. 1981년 성당의 보수공사 중, 초기 성당의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그의 건축학적 특징이 5-6세기 경의 건축양식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발견은 초기 두브로브니크 역사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 이에 따르면 두브로브니크는 이미 6세기 초에 발전된 도시공동체를 구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성당에는 티치아노(Titian)의 1552년작, 성모승천 다폭제단화(多幅祭壇畫, polyptych)를 비롯하여 많은 회화작품과 유물 등의 보물을 보유하고 있다.



성 도미니크 성당은 크로아티아 연안에서 가장 큰 고딕 양식의 종교 건축물이다. 단 하나의 제단과 장축단을 가진 간결한 건축 디자인으로 성당의 앞부분은 높은 고딕 아치형 장식의 성당을 세 구역으로 나눈다. 그 중에서도 제단 위의 중앙 아치에는 1314년에 파올로 베니치아노(Paolo Veneziano)의 작품인 십자가가 걸려있다. 도미니크회 수도원에는 두브로브니크의 예술학파 (보지다레비치 Božidarević, 하르지치 Hamzić, 도브리체비치 Dobričević) 출신 명인의 15-16세기 작품과 대화가 티치아노가 수호성인 성 블라이세, 세인트 마리아 막달라, 대천사 라파엘, 토비아를 함께 그린 작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곳의 박물관에는 중요 문서자료, 인쇄물, 원고, 11세기의 성경과 두브로브니크 세공인의 장신구의 컬렉션 등이 전시되어 있다.



## 광장 (드르지치, 군둘리치, 보슈코비치 광장)

스트라둔이나 작은 골목길을 걷다보면 올드타운 곳곳에 있는 광장과 만나게 된다. 대성당 앞에 있는 마린 드르지치 광장(Marin Držić Square)은 카르멘 지역(Karmen), 올드포트, 아쿠아리움으로 이어진다. 주민들은 '성모의 앞'이라고도 부르는 이 광장의 주변에는 성모승천대성당, 소르카체비치 궁(Sorkočević Palace), 작은 규모의 바르톨로뮤 성당, 돌치치-마슬레-폴리티카 아트갤러리(Dulčić-Masle-Pulitika Art Gallery)와 미국의 전 상무장관, 로널드 브라운의 추도관이 있다. 1996년 4월 3일, 브라운 장관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두브로브니크 공항 뒤쪽의 성 요한 언덕과 충돌하면서 장관을 포함하여 함께 평화임무를 수행하던 일행이 모두 목숨을 잃은 사고가 일어났다. 이 광장은 극작가, 시인, 오르간 연주자였던 마린 드르지치 (1508 두브로브니크 - 1567 베니스)의 이름이 붙여졌다. 두브로브니크와 베니스, 양국에서 공부를 했던 그는 1541년, 시에나 대학의 부총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드르지치는 음모자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1566년, 피렌체에서 머물던 시기에 정친인 코시모 메디치(Cosimo Medici)에 두브로브니크 공화국의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서신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특권 귀족층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공공정책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의 작품은 사랑, 젊은 시절에 대한 향수, 욕심, 교활함, 인색함 등의 보편적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감정에 대해 주로 이야기 한다. 그의 극작품은 일상의 활력이 넘치는데, 잘 알려진 작품으로는 티레나(Tirena), 그리줄라(Grizula), 비너스와 아도니스, 스타나츠 이야기(The Story of Stanac), 구두쇠와 헤카베가 있다. 그의 명작, 희극 마로예 아저씨(Uncle Maroje)는 모두가 동등한 사회,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 본질적 차이, 그리고 사랑을 포함한 모든 요소에 대해 돈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군둘리치 광장(Gundulić Square)에는 두브로브니크의 시인, 이반 군둘리치(Ivan Gundulić, 두브로브니크 1589-1638)의 동상이 있다. 이곳에서 교육을 받았던 군둘리치는 코나블레의 렉터로 두 번이나 선출되었고, 상원의원, 소의회 의원, 보스니아 파샤 특사까지 지낸 인물이다. 바로크스타일을 지향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그의 작품에서 카톨릭 개혁에 대한 의지를 많이 엿볼 수 있다. 인간의 삶이 가진 위태로움은 그가 가진 주요한 관념이기도 했다. 가장 잘 알려진 군둘리치의 작품은 '탕아의 눈물(1622, Tears of the Prodigal Son, 베니스), 두브라브카(1628, Dubravka, 두브로브니크에서 초연), 오스만 (Osman, 1826년 마지막 재판 인쇄)이 있다. 군둘리치는 사망한 뒤, 프란체스코 성당에 묻혔는데, 이곳의 서재에는 오스만의 가장 오래된 1652년 인쇄판과 1826년 두브로브니크 인쇄판이 보관되어 있다. 이 광장의 가멜링분수 (Amerling Fountain)는 1667년 대지진 때 파괴되어 다시 만들어졌는데, 1991년 전쟁 때에도 다시 훼손되었다. 군둘리치 광장에서는 야외시장이 열리는데, 근처 마을의 농부들이 매일 아침 직접 기른 상품을 판매하고 한다. 바로크 양식의 계단을 오르면 루제르 보슈코비치 광장(Ruder Bošković Square) 남쪽으로 이어진다. 1738년, 로마의 건축가 피에트로 파싸라쿠아(Pietro Passalacqua)가 설계한 이 계단은 로마의 성삼위일체 성당으로 들어가는 유명한 스페인계단을 연상시킨다. 군둘리치 광장의 주변에는 성 이그나티우스 예수회성당, 유명한 두브로브니크의 예수회 대학 (Collegium Ragusinum)이 있다. 성당은 유명한 예수회 건축가, 이그나치오 포조 (Ignazio Pozzo)가 설계하여 1725년에 완공되었다. 성당의 내부에는 화가 가에타노 가르시아 (Gaetano Garcia)가 예수회의 창립자, 성 이그나티우스의 일생을 그린 바로크양식의 트롬프뢰유 (trompe l'oeil) 프레스코화가 장식되어 있다. 절제되어 있고 굵은 선을 강조하는 바로크 양식의 성당 외벽 옆에는 예수회 신학교가 있고, 바로크양식의 계단을 내려가면 군둘리치 광장 쪽으로 내려갈 수 있다.

## 트르스테노

두브로브니크와 20km정도 떨어진 곳에 트르스테노(Trsteno)가 있다. 깨끗한 물이 풍부하여 갈대가 많이 자라는데, 이곳의 지명도 갈대라는 뜻의 크로아티아어 'trstika' 에서 유래하고 있다. 대로 옆의 광장에는 400년 수령의 플라타나스 나무(Platanus Orientalis) 두 그루가 있는데, 동일 종 중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큰 크기를 가지고 있다. 트르스테노의 주요 명소는 크로아티아의 단 한 곳밖에 없는 트르스테노 수목원(Trsteno Arboretum)이다.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정원과 엄청난 수의 지중해 식물 및 외래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이 수목원은 1948년, 두브로브니크의 귀족 구체티치 고체 가(Gučetić-Gozze)의 여름 별장 내에 만들어졌다. 수목원은 전체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조경건축물로 보존되고 있다. 25헥타르의 면적에 펼쳐져 있는 수목원은 여름별장과 르네상스 전통의 정원, 19-20세기의 전통 네오로만틱 정원, 오래된 올리브 과수원과 잔털참나무, 전나무, 사이프러스, 마치아(macchia) 초목이 군락을 이루고 있는 자연삼림, 그리고 바위해안의 각각 다른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반 마리노브 구체티치 고체는 1494년 르네상스 시대, 그가 소유하고 있던 트르스테노의 사유지에 여름별장과 정원을 지었다. 이후 이곳은 두브로브니크 지역 인문학과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아름다운 정원에서 두브로브니크와 다른 지역 출신의 수많은 시인, 인문학자, 철학자가 이곳에 모여 인간 본성에 대해 토론하고 교감했다. 그 중에는 그녀가 참여한 크로아티아 르네상스 운동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외모로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시인, 츠비에타 주조리치(Cvijeta Zuzorić)도 있었다. 정원의 분수는 수목원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명소로, 14개 아치가 있는 총 70m 길이의 석조 송수로를 통해 분수로 물이 공급된다. 1736년, 르네상스 시대 이전의 형태였던 분수는 다양한 조각상과 그 한가운데 바다와 물의 여신 넵툰상이 있는 화려한 바로크식 님파에움으로 변신하였다.





## 엘라피티 군도

엘레피티 군도는 두브로브니크 북서부에 있는 13개 섬의 무리이다. 콜로체프(Koločep), 로푸드(Lopud), 시판(Šipan)이 군도의 주요 섬으로 아주 오랫동안 옛날부터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하였다. 그 증거로 고대 일리리아의 건축물, 그리스 혹은 로마어에서 유래된 지명 등을 들 수 있다. 이 군도는 11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두브로브니크 공화국에 속해있었다. 군도의 첫 렉터는 1272년에 지명되었고, 이후 군도에서의 삶은 번창했다. 15-16세기 두브로브니크의 황금기에는 오늘 날보다 당시의 인구 수가 훨씬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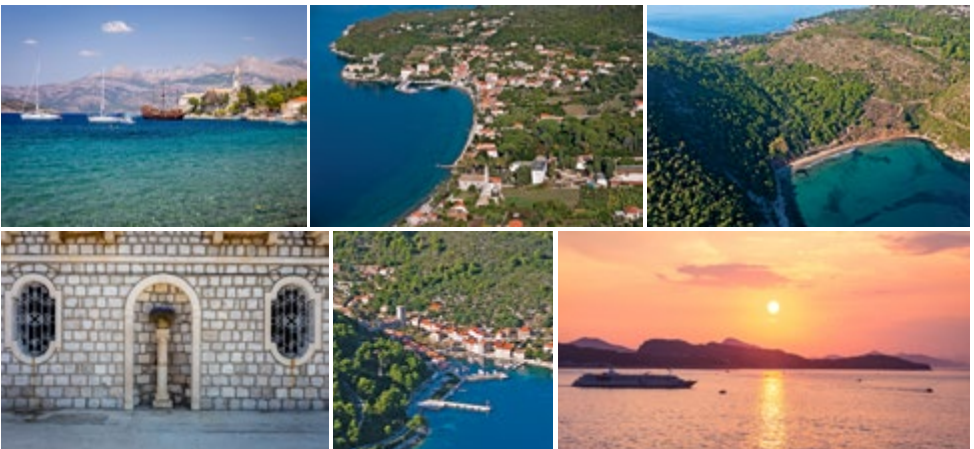
그루즈 항구에서 출발하는 정기선이나 여객선을 이용하여 당일여행으로 1개 혹은 여러 개의 섬을 방문할 수 있다.

엘라피티 군도의 많은 명소는 대부분 여유롭고 평온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콜로체프의 오래된 크로아티아 성당, 로푸드 순(Šunji)의 훌륭한 모래 해변, 시판-수주라즈(Sudurad)에 있는 스코치부하-스테포비치 가(Skočibuha-Stjepović)의 여름 별장, 수주라즈와



루카 시판스카(Luka Šipanska) 마을을 잇는 비옥한 협곡 등이 있다. 특히 5km정도 되는 협곡은 걸어서 혹은 버스로 접근이 가능하며, 이곳에서는 렉터궁과 성스테판 성당을 볼 수 있다. 군도의 작은 식당에서는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한 해산물 요리와 야채, 과일, 치즈, 올리브 오일, 와인 등 최고의 요리를 맛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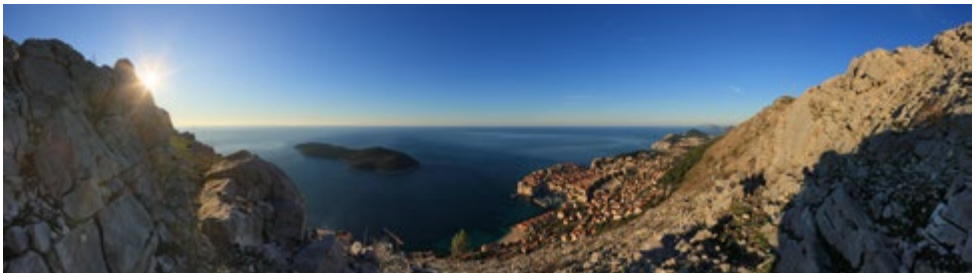
로푸드에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명소가 생겼는데, 마을과 도보로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에 ‘당신의 검은 수평선:Your Black Horizon’이라는 설치예술작품이 있다. 이 작품은 덴마크-아이슬란드의 예술가 올라퍼 엘리아슨(Olafur Eliasson)과 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아디아에(David Adjaye)의 합작품이다.



## 스르지산 - 두브로브니크 전경, 박물관, 케이블카

두브로브니크 옆에 솟은 415m 높이의 스르지산(Srd)은 올드타운과 주변 섬이 만드는 장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다. 택시를 타거나 올드타운에서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서 출발 하는 케이블카를 타고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꼭대기에는 카페, 식당, 그리고 현재는 1991-1995 독립전쟁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폴레옹의 임페리얼 보루(Fortress Imperial)가 있다. 정상에 석조 십자가는 대리석으로 유명한 달마시아의 섬, 브라치(Brač)에서 채석한 돌로 제작되었다. 이 돌은 브라치-흐바르 대교구에서 기증한 것인데 독립전쟁에서 파괴된 이전의 십자가도 같은 대교구에서 동일하게 기증했던 돌로 제작되었다.

1969년에 처음 설치된 케이블카는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2010년에 복구되었다. 아래쪽 출발지에서 매 30분마다 운영되는데, 플로체 게이트나 보슈코비체바 거리(Boškovičeva, 종탑에서 4번째 거리)의 계단 끝에 있는 출입구에서 도보로 몇 분 걸리지 않는다. 성수기 기간에는 밤 12시에 마지막 케이블카가 정상에서 출발하지만 그 외 기간에는 그보다 일찍 출발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케이블카 탑승권은 아래쪽 출발지에서 구입하거나 여행사, 두브로브니크의 대부분의 키오스크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 라자레티

수세기 동안 해상교역의 중심지이자 카라반의 교역로였던 두브로브니크는 일찍이 검역소를 도입한 유럽에서 몇 안되는 나라 중 하나였다. 검역소 설치를 통해 옮겨지는 질병을 예방하고 전염병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할 수 있었다. 검역소의 격리기간은 40일정도로 (검역소 Quarantine의 어원도 40일이라는 뜻을 가진 이탈리아어에서 유래) 차르타트 반대편의 므르칸(Mrkan)과 보바라(Bobara)의 작은 섬에 처음 설치되었다. 로크룸에도 검역소를 설치하였으나 도시 보안의 이유로 건설 도중 취소되었다. 1590년에는 울드타운 동쪽 성문 근처에 있는 바위 위에 여러 채의 가옥과 정원, 그리고 견고한 격리벽으로 구성된 검역소 건설이 시작됐고, 1642년에 완공하였다. 이후, 두브로브니크에 입항한 상인과 선원들은 라자레티 (Lazarets 혹은 lazarettos)로 불리던 이 검역소에 격리되었다. 신부, 내과 의사, 이발사이자 외과 의사, 충분한 인원의 간호사로 구성된 직원과 자체 수도설비 등으로 잘 구성된 검역소 내에서는 엄격한 검역소 규칙이 매우 철저하게 지켜졌다.

라자레티 건물은 잘 보존, 복원되어 있다. 그 중 일부는 예술공예 공방으로 사용되거나, 린조 민속무용단 (Lindo Folklore Ensemble), 학생극장, 혹은 젊은 예술가들의 무대로 사용되기도 한다.



## 올드포트

파스코예 밀리체비치(Paskoje Miličević, 1440년대 출생)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보여, 겨우 26세 때 이미 나라에서 공인받은 기술자가 되었다. 그가 현재의 올드타운의 형태를 기획한 건축가로, 카셰(Kaše) 방파제를 올드포트 입구에 구축하여 파도와 바다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도록 했다. 밤이되면 적국의 침입선이 몰래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성 요한 보루의 원치로 작동하는 체인으로 이 입구를 봉쇄했다. 밀리체비치는 조르지오 다 세베니코(Giorgio da Sebenico)가 설계한 오드 폰테 성문(Od Ponte Gate)을 새로 만들고, 16세기 초, 마침내 올드타운 건설을 완성했다. 페스카리아(Peskarija 수산물시장)와 포르포렐라 방파제는 19세기 오스트리아 지배시기에 추가되었다. 이곳에는 두 곳의 조선소가 있었는데 유명했던 두브로브니크 범선을 제작하고 수리하던 조선소의 건조도크에서는 오늘날 아스널 레스토랑이 운영되고 있다.





# 박물관

## 두브로브니크 박물관

주소: Pred Dvorom 3, tel: +385 20 321 422, fax: +385 20 322 096

e-mail: marketing@dumus.hr, www.dumus.hr

두브로브니크 박물관의 입장권을 제시하면 렉터궁, 해양박물관(성 요한 보루), 레블린 보루(고고학 연구), 민속박물관(루페 곡물저장소, The Rupe Granary), 마린 드르지치 생가, 두브로브니크 자연과학관의 입장이 가능하다.

**각각의 박물관의 운영시간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 두브로브니크 박물관은 12월 25일 크리스마스, 1월 1일 새해, 2월 3일 성 블라이세의 날에는 휴관한다.**

## 문화역사박물관 (렉터궁)

주소: Pred Dvorom 1, tel: +385 20 321 422

문화역사박물관은 한 때 두브로브니크 공화국의 행정부가 있었고 렉터가 거주했던 렉터궁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

이 박물관은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가구, 회화, 동전 그리고 당시의 실용적인 물품 등을 전시하고 있다. 법정, 감옥, 공중사무소가 있었던 1층에는 두브로브니크에서 화폐로 사용된 동전, 인장, 추 등이 전시되어 있고, 중간층에는 시계가 전시되어 있다. 2층에는 가구, 초상화, 의복 및 도무스 크리스티 약국의 제품, 그리고 다양한 무기를 볼 수 있다.



대의회장 출입문의 위에는 공화국의 국시 'OBLITI PRIVATORUM PUBLICA CURATE' (개인 일은 잊어버리고 나라의 일을 위하라.) 가 새겨져있다. 부유한 선장이자 후원자 (1628년 P. Giacometti의 작품)였던 미호 프라차트(Miho Pracat)의 흉상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념상은 두브로브니크 공화국이 정부기관 내에 설치를 허가한 유일한 일반국민의 조각상이었다. 오늘 날 렉터궁의 안마당은 콘서트 장소, 특히 여름축제의 무대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 해양박물관

성 요한 보루에는 해양박물관이 있다. 첫번째 층의 전시물은 두브로브니크 해상무역의 발전과 두브로브니크 공화국 초기부터 마지막까지의 조선업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두번째 층에서는 19세기 두브로브니크와 펠레샤츠에서의 해상무역 재개와 세계2차대전과 그 이후까지의 두브로브니크 증기선 함대 관련 물품을 전시하고 있다.



## 민속박물관

오늘날 민속박물관이 있는 자리는 16세기 곡물저장소였다. 정부는 이곳에 밀, 보리, 수수 등의 곡물을 구멍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루페(rupe)에 저장하였다. 루페는 자연석을 파서 만든 공간인데, 벽면은 방수의 기능을 하는 물질을 덧발라 연중 17°C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곳에 저장된 곡물로 6개월 동안 올드타운 전체 시민에게 식량 공급이 가능했고, 적에게 포위당한 위급한 시기에는 저장소의 보안에 매우 신경을 썼다. 이 박물관의 1층에는 전통적인 농촌경제와 당시의 건축물과 관련된 물품을 전시하고 있고, 2층에는 전통의상과 수공예 직물을 볼 수가 있다.



## 고고학 박물관 - 레블린 보루

‘두브로브니크 고고학 박물관의 초기 중세 조각’ 전시회는 로마네스크 이전과 초기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 가구, 제단의 난간, 연단, 성함(聖龕), 성가대 단상과 석조 건축물의 유물 - 기둥, 기둥머리, 문, 창문틀, 아치급 등을 전시하고 있다.

‘레블린, 고고학 연구 / 건축학적 발전 / 주조’ 전시회는 현재의 보루가 세워지기 이전, 같은 자리에 있었던 초기 보루 두 개의 건설 과정을 보여준다.

## 마린 드르지치 생가

크로아티아의 르네상스시대 대작가, 마린 드르지치(Marin Držić)의 일상과 작품을 현대 시청각 장치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 두브로브니크 자연과학 박물관

두브로브니크의 자연과학은 1872년, 무세오 파트리오(Museo Patrio)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상공회의소와 공예품 콜렉션에 더해, 약사이자 선주였던 안톤 드로바츠(Antun Drobac)개인이 수집한 자연과학 물품을 전시하고 있다.

## 프란체스코 수도원 박물관

131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오래된 프란체스코회 약국의 물품을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은 프란체스코 수도원의 안뜰에 위치하고 있다. 약국 내에는 잘 보존된 15-16세기 가구와 이탈리아,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가져온 도기 제품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이곳에는 14세기의 인쇄물, 막자사발, 수분증류기와 각 재료의 정확한 첨가량을 표기한 약 제조법 등도 볼 수가 있다. 이 박물관에서는 보기 힘든 성가 악보의 원본, 알려지지 않은 예술가의 그림, 14세기 성 우르슬라의 성유물, 그리고 봉헌된 보석 등을 볼 수가 있다.



## 대성당과 보물

18세기에 지어진 바로크양식의 성모승천대성당은 1667년 대지진으로 파괴된 12세기 로마네스크 성당이 있던 자리에 세워졌다. 이전에 있었던 로마네스크 성당은 사자심왕 리처드1세 영국왕과 관련된 전설이 있기도 하다. (로크룸 참조). 대성당의 지하제실은 특별한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곳에는 12세기에서 19세기의 성인의 성유물 182점이 보관되어 있다. 성인과 순교자의 뼈조각 등은 두브로브니크의 세공사가 귀금속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한 함에 모셔졌다. 대성당이 보유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것은 성 블라이세의 성유물이다.

## 도미니크회 수도원 박물관

도미니크 박물관은 이 수도원의 제실에 위치하고 있다. 전시물 중에서도 단연코 눈에 띄는 것은 15-16세기 대표적인 두브로브니크 화파, 보지다레비치, 하므지치, 도브리체비치의 중요한 작품들이다. 그 외에도 봉헌된 보석과 성유물, 원고, 초기간행본, 중요 문서, 여러 교황의 칙서, 성모와 아기 비잔틴양식 초상화, 최근 복원된 티치아노의 세인트 마리아 막달라, 대천사 라파엘, 토비아를 함께 그린 작품 등이 있다. 주제단 위에는 14세기, 파올로 베네치아노가 만든 큰 십자가가 도미니크 성당을 압도한다.





Turistička zajednica  
grada Dubrovnika  
Dubrovnik  
Tourist Board

Dubrovnik Tourist Board Information Centre  
Info ured Turističke zajednice grada Dubrovnika

**PILE: Brsalje 5, tel/fax: +385 20 312 011**

**info@tzdubrovnik.hr**



**Express sightseeing tour** 30 min  
Brza turistička ruta

**North sightseeing tour** 1 h  
Sjeverna turistička ruta

**South sightseeing tour** 2 h  
Južna turistička ruta

**Full sightseeing tour** 3,5 h  
Cjelokupna turistička ruta

\* **Approx. time of the tour. For individual attractions time is not included!**

\* Približno trajanje rute! Vrijeme potrebno za posjetu atrakcijama nije uključeno!

- 19. **House of Marin Držić**  
Dom Marina Držića
- 20. **National Library**  
Narodna knjižnica Grad
- 21. **Synagogue - Museum**  
Sinagoga-muzej
- 22. **St Nicholas Church**  
Crkva sv. Nikole
- 23. **St Sebastian Church**  
Crkva sv. Sebastijana
- 24. **Church and Confraternity Rosario**  
Crkva i bratovština Rozario
- 25. **Dominican Monastery-Museum**  
Dominikanski samostan-muzej
- 26. **City wall entrance**  
Istični ulaz na gradske zidine
- 27. **St John Fort**  
Tvrđava sv. Ivana
- 28. **Maritime Museum**  
Pomorski muzej
- 29. **Aquarium**  
Akvarij
- 30. **Fort Bokar**  
Tvrđava Bokar
- 31. **Fort Minčeta**  
Tvrđava Minčeta
- 32. **Science institutions**  
CAAS IUC UNIDU RIT Croatia
- 33. **Fort Lovrijenac**  
Tvrđava Lovrijenac
- 34. **Former Convent of St Claire**  
Bivši Samostan sv. Klare
- 35. **Sigurata Church**  
Crkva Sigurata
- 36. **Priječko street**  
Priječko
- 37. **Serbian Orthodox Church and Museum of Icons**  
Srpska pravoslavna crkva i muzej ikona
- 38. **Mesjid (Mosque)**  
Džamija
- 39. **Fort Revelin**  
Tvrđava Revelin
- 40. **Ploče Gate**  
Vrata od Ploče
- 41. **Lazareti (Quarantine)**  
Lazareti
- 42. **Chapel of Annunciation and of St Luke**  
Crkvice Navještenje i Sv. Luke
- 43. **North city entrance (Buža)**  
Sjeverna gradska vrata (Buža)
- 44. **St Ignatius Church**  
Crkva Sv. Ignacija
- 45. **Domino Church**  
Crkva Sv. Domina
- 46. **Natural Science Museum**  
Prirodoslovni muzej
- 47. **The Gornji Ugao Tower**  
Kula Gornji ugao
- 48. **Gallery and war suffering by artist Ivo Grbić**  
Galerija i ratno stradanje slikara Iva Grbića
- 49. **Dubrovnik Symphony Orchestra**  
Dubrovački simfonijski orkestar
- 50. **Dulčić Masle Pulitika Gallery**  
Galerija Dulčić Masle Pulitika
- 51.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Umjetnička galerija Dubrovnik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Old City of Dubrovnik  
- Inscrib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in 1979

- 7. **Orlando's Column**  
Orlandov stup
- 8. **Sponza Palace-Historic Archives**  
Sponza-Povijesni arhiv
- 9. **Bell tower and bell lounge**  
Gradski zvonik i luža zvonara
- 10. **Small Onofrio's Fountain**  
Mala Onofrijeva fontana
- 11. **St Blaise Church**  
Crkva sv. Vlaho
- 12. **City Hall and Marin Držić's Theatre**  
Vijećnica i Kazalište Marina Držića
- 13. **Cultural History Museum / Rector's Palace**  
Kulturno-povijesni muzej / Knežev dvor
- 14. **Old Port**  
Gradska luka
- 15. **Cathedral-Treasury**  
Katedrala - riznica
- 16. **Gundulić Square**  
Gundulićeva poljana
- 17. **St Catherine Convent**  
Samostan sv. Katarine
- 18. **Ethnographic Museum / Rupe**  
Etnografski muzej / Rupe

- 1. **Pile Gate**  
Gradska vrata Pile
- 2. **Entrance to the City Walls**  
Ulaz na gradske zidine
- 3. **St Saviour Church**  
Crkva svetog Spasa
- 4. **Big Onofrio's fountain**  
Velika Onofrijeva fontana
- 5. **Franciscan Monastery-Museum**  
Franjevački samostan-muzej
- 6. **Main street Placa (Stradun)**  
Placa (Stradun)

## 시나고그

시나고그, 유대인 박물관

두브로브니크 공화국은 1546년 유대인의 거주를 허가하고, 올드타운의 주디오스카 거리(Žudioska)에 최초로 유대인 지구를 만들었다. 1652년에는 이미 그 곳에 있던 대저택이 시나고그로 편입되었는데, 이 저택의 내부는 바로크 양식으로 꾸며졌다. 소규모의 변경이 있었지만, 오늘날까지 그 형태를 잘 보존하고 있어, 유럽에서 두번째로 오래된 세파르딕 시나고그(Sephardic synagogue)로 인정받고 있다. 이 박물관에는 역사적 유물, 고문서와 두브로브니크 유대인 공동체의 500년 역사를 증명하는 13세기에서 17세기의 토라(Torah, 율법)가 전시되어 있다. 유대인 공동체는 유대인 묘지를 별도로 보유하고 있고, 올드타운의 서쪽 성문 밖 근처에는 유대인 분수가 있다.



## 시구라타 수녀원 박물관

첼레스티나 메도비차 거리(Celestina Medovića)에 위치한 이 박물관은 16-19세기의 그림과 성물, 14세기 행진에 사용된 십자가, 2대의 18세기 베틀, 레이스 세공품과 자수 등을 전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전시물은 봉납품이거나 수녀원에서 만들어진 물건이다.

## 두브로브니크 수호자 추모관

스폰자 궁에는 두브로브니크 수호자 추모관이 있다. 이 곳에는 1991-1995년 사이에 일어난 크로아티아 독립전쟁에서 희생된 모든 이들의 사진이 걸려있다.

## 고르니 우가오 타워 / 민체타 보루

두브로브니크 만의 독특한 역사를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가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최근 15세기 후반, 중세 주조공장 형태 가진 당시의 '산업지구'가 민체타 보루 아래쪽에서 발굴되었다.

## 크로아티아 독립전쟁 박물관 - 두브로브니크 / 임페리얼 보루, 스프지 산

스프지 산, 임페리얼 보루의 부속건물 중 하나에는 크로아티아 독립전쟁 박물관이 있다. 아직 제작 중에 있는 이 박물관은 1991-1995년 크로아티아 독립전쟁동안 이뤄진 잔인하고 끔찍한 공격에도 빛난 두브로브니크 수호의 상징적인 장소이다. 영구전시 프로젝트의 첫 단계인 '1991-1995 크로아티아 독립전쟁 속의 두브로브니크'는 '두브로브니크 공화국의 쇠퇴와 임페리얼 보루의 역사, 1991년 세르비아-몬테니그로의 공격, 크로아티아의 군작전 - 승리의



날로 구성된 주제 아래, 500여점의 전시물과 함께 당시 고통받던 주민, 파괴된 주택과 문화유산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전시회에서는 문서, 관련 예술과 다큐멘터리 영상, 당시 인쇄물, 지로나 폭발장치를 포함한 무기, 전쟁지도, 당시의 지휘상황, 군장비, 두브로브니크 포위당시 주민과 방어군이 사용했던 일상용품, 실제 공격당시 녹화된 영상자료, 참전군의 인터뷰, 군 깃발, 1991년 실제 쓰르지 산 정상에 게양된 국기, 지리대설지도, 전쟁기록지 등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두브로브니크를 지키다가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념비가 이 보루의 근처에 세워져있다.

## 로날드 브라운 추모관

미국의 상무장관, 로날드 브라운은 평화임무를 수행하던 중, 1996년 4월 3일, 그가 타고 있던 비행기가 코나블레 언덕과 충돌하여 그를 포함해서 비행기에 타고 있던 전원이 목숨을 잃었다. 추모관은 이 비극이 일어난지 1주년이 되던 날에 공개되었다. 이 추모관은 20세기 두브로브니크에서 가장 유명했던 화가, 안톤 마슬레(Antun Masle), 이보 돌치치(Ivo Dulčić), 주로 풀리티카(Đuro Pulitika)에 헌정된 아트갤러리가 있는 건물에 위치하고 있다.

## 두브로브니크 기록보관소

두브로브니크 기록보관소가 보유하고 있는 12세기부터 두브로브니크 공화국의 쇠퇴기까지의 문서만으로 이미 이곳은 세계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이다. 그 중에서도 1272년 두브로브니크 법령의 원본을 포함한 법전은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다. 이곳에 보관되어 있는 오스만 제국의 문서 또한, 해당 시기를 연구하기 위한 문서자료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 갤러리

두브로브니크는 많은 수의 아트갤러리를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예술품을 구입할 수가 있다. 올드타운 내에 있는 갤러리는 다양한 전시회를 기획하고 있다.

## 두브로브니크 현대예술박물관

현대예술박물관에는 특히 크로아티아와 두브로브니크 출신의 예술가들의 특출난 작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때때로 열리는 특별전시회에서는 크로아티아의 고전적, 현대적 예술의 전통과 높은 업적을 확인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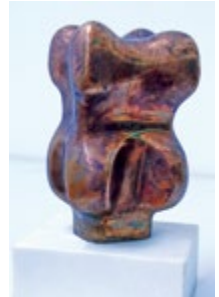
## 아텔리에르 폴리티카

성 요한 보루

## 갤러리 돌치치-마슬레-폴리,티카 로날드 브라운 추모관

주소: Držićeva poljana bb

tel: +385 20 323 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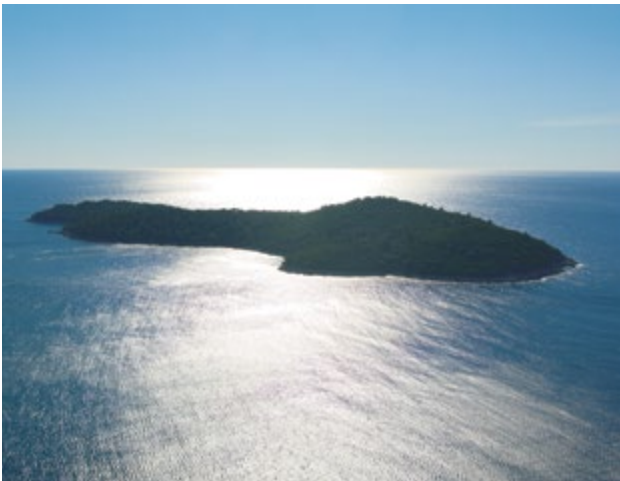


# 도시탈출

## 로크룸 섬

로크룸(Lokrum)은 서기 1023년에 작성된 베네딕트 수녀원과 수도원 설립에 대한 문서에서 처음 등장한다. 전설에는 1192년에는 사자심왕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리처드1세가 제3차 십자군전쟁에서 영국으로 돌아가던 중, 로크룸 근처에서 폭풍우를 만나 배가 부서져 바다에 표류하게 되었다. 로크룸의 사람들에 의해 구조된 그는 고마움의 표시로 자신이 발견된 로크룸 연안에 성당을 짓겠다고 한다. 하지만 두브로브니크 사람들의 권유로 로크룸이 아닌 울드타운 내에 성당을 짓기 위한 자금을 기부했다. 막시밀리안 본 합스부르크(Maximilian von Habsburg)는 1859년 이 섬을 매입하여, 수도원의 잔해 위에 정원과 산책로가 멋진 별장을 지었다. 베네딕트의 수사가 시작한 정원을 가꾸고 이국적인 식물을 키우는 일은 막시밀리안을 거쳐, 1959년 식물원이 생길 때까지 계속 되었다. 2헥타르가 넘는 규모의 이 식물원에는 70가지의 유칼립투스를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호주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종류의 유칼립투스가 한데 모여있는 장소이다. 또한 453종의 나무와 관목, 400종의 다육식물이 이곳에서 자라고 있다. 1962년에는 자연보호구역으로 선포되었으며, 이어 1976년에는 UNESCO가 보호하는 특수삼림식물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었다. 섬의 전체 면적 0.7km<sup>2</sup> 중에서 0.6 km<sup>2</sup> 에 녹음이 우거져있어 로크룸은 육지와 해양의 동식물이 생존하기에 거의 완벽한 생태학적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곳은 43여 과, 156여 종의 조류가 서식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로크룸을 대표하는 새는 150년 전 막시밀리안이 카나리아 제도에서 들여온 공작이다.

1806년 프랑스 인들에 의해 지어진 로얄요새(Royal Fortress)는 위에서 보면 별모양의 형태가 보인다. 이곳에서는 두브로브니크와 차브타트, 여러 섬의 모습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 가는 법

매 30분마다 올드포트에서 출발하는 스칼라(Skala)나 즌린스키(Zrinski) 보트를 타고 10분이면 로크룸에 도착한다. 승선권은 배가 대어져 있는 부두에서 바로 구입하여 탑승하면 된다. 첫 배는 오전 9시에 출발하고 로크룸에서 떠나는 마지막 배는 시즌에 따라 오후 7-8시 사이에 출발한다. 섬에서 나오지 않고 이곳에서 숙박이나 캠핑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보트는 1년중 4월에서 10월까지 운영된다.

## 호수와 해변

섬에는 므르트보 모레 (Mrtvo More 사해)라고 불리는 작은 호수가 있다. 이 호수는 물 밑으로 바다와 연결되어 있으며 어린 아이들이나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물놀이를 즐기기에 적당하다. 수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섬의 수많은 해변가를 찾으면 된다. 장소를 안내하는 표지판이 매우 잘 만들어져있어,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있는 곳의 위치를 금방 알 수 있다. 해변가에는 수도물이 나오는 샤워시설이 마련되어 있다.

## 도전하는 사람을 위한 장소

이 섬의 또 다른 자연관광명소로 퍼플케이브(Purple Cave)가 있다. 바위를 뒤덮은 보랏빛의 해초 때문에 퍼플케이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이 곳으로 가려면 보트를 타거나 누드비치를 지나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에게 많이 알려진 장소는 아니다.

지난 2011년, 세계적인 방송사 HBO는 TV시리즈 '왕좌의 게임'의 촬영지로 두브로브니크를 선택했다. 올드타운은 킹스랜드이 되었고, 로크룸은 시즌 2에서 대너리스가 방문한 제이드 해의 콰스로 변신하였다. 촬영은 식물원이나 베네딕트 수도원의 유적지에서 진행되었다.

## 관광안내소

왕좌의 게임 드라마 전시장이 있는 안내소는 2015년에 만들어졌다. 두브로브니크와 크로아티아의 다른 지역에서의 드라마 촬영모습이 담긴 영상을 볼 수 있고, 촬영장소가 표시된 지도가 관광객에게 제공된다.

## 리에카 두브로바츠키

옴블라강(Ombla) 입구는 두브로브니크의 서쪽 입구, 두브로브니크 다리의 바로 아래쪽에서 시작한다. 상류의 발원지 근처에는 여러 마을이 반원을 그리며 들어서있다. 피오르드와 비슷한 형태의 만은 15-16세기, 두브로브니크 귀족의 휴가지로 유명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현재까지도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빌라는 ACI 마리나 두브로브니크의 끝에 위치한 소르고체비치가(Sorkočević 家)의 여름별장으로 그 정원과 계단이 매우 아름답다. ACI 마리나의 해상, 육상계류장은 연중 이용이 가능하다.

옴블라강의 연안, 리에카 두브로바츠키는 다양한 종류의 철새와 텃새의 서식지로 ACI 마리나 두브로브니크의 수영장에서 커피를 즐기고 있으면 오리나 우아한 백조 떼가 강으로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리에카 두브로바츠키 지역은 시내버스로 두브로브니크의 대부분 지역과 연결된다.



# 주변지역

## 믈레트 섬

전설의 오디세우스도 님프 칼립소의 이끌려 믈레트(Mljet)에 갔다고 전해지는데, 믈레트의 매력에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믈레트에서는 남쪽의 오디세우스 동굴과 운이 좋다면 지중해의 몽크바다표범까지 볼 수 있다.

믈레트는 풍부한 역사적, 고고학적, 문화적 유적을 자랑한다. 믈레트 국립공원은 이 섬의 서쪽 녹지대에 위치하고 있다. 그루즈 항구에서 보트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으며, 펠레사츠 반도의 스톤과 가까운 프라프라트노(Prapratno)에서 카페리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이 섬의 주요 기항지는 소브라(Sobra)이지만, 성수기에는 그루즈에서 폴라체(Polače)까지 쾌속여객선을 운행한다. 폴라체에서는 국립공원으로 가는 미니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나 소형자동차로 대어할 수도 있지만, 공원 내에서는 차량 등의 기타 운송수단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자연, 크고 작은 호수가 짙은 해협을 통해 바다로 이어지는 풍경의 아름다움은 그야말로 매혹적이다. 대호수의 중간에 있는 성마리아 섬은 작은 셔틀보트로 갈 수 있는데, 이곳에는 12세기에 지어진 베네딕트 수도원이 현존한다. 호수가를 따라 아주 오래 된 소나무 숲의 그늘 아래로 난 길이 있다. 이 길을 따라 호수의 가장자리를 산책할 수 있다.

국립공원의 근처에는 그림 같은 작은 항구, 포메나(Pomena)가 있다. 이 섬에 있는 단 하나의 호텔이 이 항구에 위치하고 있다.





## 스톤과 펠레샤츠 반도

두브로브니크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는 작지만 매력적인 도시, 스톤(Ston)이 있다. 이곳에서 말리스톤까지 이어지는 5km의 성벽은 14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방어성벽의 역할과 동시에 펠레샤츠 반도와 본토를 나누는 경계이기도 했다. 스톤의 성벽은 중국의 만리장성에 이어 두번째로 긴 성벽으로 이 도시의 넓은 염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스톤에서는 2000년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전통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하고 있다. 스톤에서 생산되는 소금은 두브로브니크 공화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말리 스톤의 앞바다에서 양식으로 생산되는 독특한 맛과 뛰어난 품질의 굴도 매우 유명하다.

70km 길이의 펠레샤츠 반도 끝, 오레비치(Orebić)로 가는 중간중간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지역 와인을 맛볼 수가 있다. 오레비치에서 배를 타면 마르코폴로의 출생지가 있는 코르츨라 섬으로 갈 수 있는데, 보트 외에도 여러 여행사에서 제공하는 두브로브니크-코르츨라 당일치기 버스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다.



## 차브타트

두브로브니크에서 동쪽으로 18km정도 떨어진 곳에 차브타트(Cavtat)가 있다. 이 곳은 시외버스나 올드포트에서 출발하는 보트를 타면 방문이 가능하다. 이 도시의 역사는 아주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이곳에 처음 정착한 사람은 그리스 인으로, 이후 로마인들이 이주하여 살기 시작했다. 이후 7세기, 슬라브 족이 이 지역을 침략하여, 정착민들은 차브타트에서 떨어진 작은 마을, 라우스(Laus)로 거주지를 옮겨야 했는데, 그 곳이 바로 지금의 두브로브니크가 세워진 자리이다.

차브타트의 해안가를 따라 만들어진 산책로를 걸다가 주변의 커피숍과 레스토랑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이 도시를 찾을 이유는 충분하다. 바람을 맞으며 산책을 즐기고 바닷가를 따라 작은 반도를 한바퀴 돌 수도 있다. 그 외, 산책을 즐길 수 있는 도시 옆 울창한 숲, 블라호 부코바츠 갤러리(the Gallery of Vlaho Bukovac), 이반 메슈트로비치가 설계한 라치치 가의 묘 (Račić Family Mausoleum)가 차브타트의 대표적인 명소이다.



## 코나블레

차브타트를 지나 공항이 있는 지역이 코나블레(Konavle)이다. 이 곳은 넓은 땅과 산에서 흐르는 물이 비옥한 골짜기를 만드는데, 이 지역의 농산물은 대부분 이곳에서 생산된다. 코나블레에 흩어져 있는 작은 마을은 대부분 언덕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비옥한 땅을 놀리지 않기 위해서다. 이 지역에서는 오늘날까지 전통적인 방법으로 실크를 생산하고 있는데 몇몇의 지역에서는 실크를 만드는 시범을 보여주기도 한다. 코나블레에서 유명한 식당으로는 코나보스키 드보리(Konavoski Dvori)가 있는데 민물송어요리와 넓은 중 모양의 주물그릇에 재료를 넣고 화덕에 오랫동안 익혀먹는 양고기 요리, 페카가 유명하다. 사이클링, 승마 혹은 지프차나 ATV를 타고 탐험하는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다.

**코토르 만(Kotor, 몬테네그로), 메쥬고리에(Medugorje), 모스타르(Mostar,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모두 두브로브니크에서 당일여행이 가능하여, 많은 여행사에서 이 지역으로 가는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카브리오 버스

카브리오 혹은 파노라마 버스는 두브로브니크의 파노라마 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두브로브니크 시티투어는 두브로브니크의 풍경을 즐기고 싶어하는 관광객을 위해 만들어졌다. 투어의 하이라이트는 동쪽에서 내려다보이는 인상적인 모습의 올드타운과 서쪽의 두브로브니크 다리의 전경이다. 투어는 9개의 언어로 제공되는 오디오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으며, 버스 내부에는 한때 가장 사랑받았던 두브로브니크의 교통수단, 두브로브니크 트램의 사진이 있다. 카브리오 버스의 승차권으로 당일 다른 시내버스 이용도 가능하다.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카브리오 버스안내

Libertas d.o.o., tel: +385 20 357 020, fax: +385 20 357 126

E-mail: [libertas@libertasdubrovnik.com](mailto:libertas@libertasdubrovnik.com), [www.libertasdubrovnik.hr](http://www.libertasdubrovnik.hr)





# 어디가 재미있을까

스폰자 궁의 회랑 아래나 광장에서는 거리 공연가, 달마시아 합창단, 교회의 실내악단을 만나볼 수가 있다. 렉터궁의 고혹적인 분위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들의 콘서트 장소가 되고, 7월 10일에서 8월 25일까지 열리는 두브로브니크 여름축제기간에는 도시의 광장은 최고 수준의 공연과 연극을 볼 수 있는 야외극장으로 변신한다.

갤러리에서 화가들이 만들어낸 황홀경에 빠져보기도 하고, 두브로브니크의 호텔 테라스, 해변에서 열리는 '별 아래 별' 프로그램에서 뜨거운 여름 밤, 칵테일을 마시며 새벽녘까지 울려 퍼지는 재즈를 즐겨보자.

바다를 내려다보며 칵테일 한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장소 중에 가장 유명한 곳, 부자 바(Buža bar)는 두 곳 모두 성벽 바깥 쪽 절벽에 위치하고 있다.

골목의 작은 바 옆의 계단이나 광장에서 즐기는 술 한잔은 마치 현지인이 된 듯한 느낌을 줄 것이다.

매력적인 클럽의 화려한 조명, 신나는 음악과 리듬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올드타운의 보루라는 독특한 장소에 있는 인기클럽, 컬처클럽 레블린(Culture Club Revelin)에서도 클럽음악을 즐길 수가 있다. 반예비치클럽(Banje Beach Club)은 올드타운의 바깥에 있는데, 아름다운 올드타운의 전경과 하우스음악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장소이다. 필레에는 스카이 클럽이 있는데, 비교적 젊은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은 클럽이다.




# 어디서 미사를 드릴까

만약 두브로브니크에서 며칠동안 머무른다면, 오래된 성당에서 올리는 미사의 분위기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 뜨거운 거리를 걷다가 들어간 시원한 성당 내부는 벌써 좋은 느낌을 줄 것이다. 옛날방식으로 만든 노란 밀랍초에 불을 밝히고, 운이 좋다면 성블라이세 성당에서 아름다운 색으로 빛나는 스테인글라스 아래 울려퍼지는 성당의 오르간 소리를 들어볼 수도 있다.

두브로브니크 대부분의 성당에서는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성미사가 있다. 일요일에는 7시에서 12시까지 매 정각에 미사가 있으며, 올드타운의 몇몇의 성당에서만 오후 미사가 진행된다. 여러 곳을 둘러보느라 시간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미사시간을 알리는 성당의 종소리를 듣고 미사에 참석할 수 있다. 한여름에는 겨울보다 아침일찍, 그리고 오후 늦게 미사가 시작된다. 예수회성당에서는 일요일(6월 첫째 일요일부터 9월 마지막 일요일까지) 11시에 영어로 진행되는 성미사가 있다.



# 어디서 쇼핑을 할까

Authentically Croatian 마크 가 붙어있는 상점에서는 전통방식으로 제작한 두브로브니크의 상품과 크로아티아의 전통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다.

즐거은 여행이나 휴가에서 기념품 쇼핑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두브로브니크의 전형적인 기념품, 예를들면 카라멜을 입힌 아몬드, 아란치니(arancini, 설탕에 조리 오렌지껍질 과자), 콘톤야타(Kontonjata, 모과치즈), 이야기가 얽혀있는 다양한 브랜디,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 석공이 직접 만든 작품, 황금빛 올리브오일, 저온 압착식으로 만든 월계수, 로즈마리 향의 비누 등이 있다. 기념품은 시에서 지정되어 보조금을 받는 전통 기능공 즉, 금세공인, 세선인, 축제가면 장인, 가죽장인 등이 직접 제작한다.

유명디자이너의 우아한 옷이나 초현대적인 안경,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스탈, 핸드메이드 보석을 찾는다면 올드타운이나 그루즈와 라파드에 있는 현대식 부티크를 방문하면 된다. 대표적인 장소로는 메르찬테(Mercante), 민체타, DOC 쇼핑센터와 주파 두브로바츠키(Župa Dubrovačka)의 SUB CITY가 있다.

## 기념품

두브로브니크 금세공인의 공예품은 가장 오래되었고 또 가장 잘 알려져있는 기념품이다. 12세기에 시작된 금세공업은 14-15세기에 가장 번창했다. 노련한 손기술을 가진 두브로브니크의 금세공인들은 세심한 관리, 기술, 예술적 감각을 이용해서 이 지역의 여성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장신구를 만들었다. 레치니(rečini, 귀걸이) 혹은 푸체(puce, 장식용 단추)는 두말할 것 없이 평생소장의 가치가 있는 기념품이다. 금과 은, 그리고 산호석으로 만든 장신구는 시간이 흘러도 변치않은 아름다움과 장인정신이 빛나고, 디자인 역시 세련되어 어느 패션스타일에도 어울린다. 올드타운의 공방에서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두브로브니크 전통의 장신구를 만들고 있다.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두브로브니크에서만 구할 수 있는 식품이다. 콘톤야타(모과치츠), 만탈라(mantala, 포도과즙으로 만든 케이크), 아란치니(설탕에 조리 온렌지겔), 카라멜을 입힌 아모든, 말린 무화과, 홈메이드 과일주와 꽃으로 만든 화주, 허브가 들어간 브랜디 등이 그것이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전통 과자와 술은 여전이 어머니에서 딸에게 전해지는 전통 레시피를 따라 만들어진다. 특히 리큐어는 체리, 호두, 캐럽, 비파 등을 장미꽃잎, 설탕과 함께 브랜디에 재워 햇빛아래 숙성시켜 만든다.



펠레샤츠 반도의 포도과수원 지역은 크로아티아 남부지역에서 가장 잘 알려진 포도이자 전세계의 와인 애호가에게 사랑받는 플라바츠 말리가 자라는 곳이다. 바다 옆, 해가 잘 드는 언덕에 자란 포도는 맛과 향기가 진한 이 지역 대표적인 레드와인 플라바츠(Plavac), 딩가츠(Dingač), 포스투프(Postup)를 만든다.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인 포시프(Pošip)는 코르츨라 섬에서 생산된다. 두브로브니크 귀족의 와인, 두브로브니크 말바시아(Malvasija)는 '신의 음료'라고도 불리며 코르츨라에서 재생산되고 있는 와인이다. 특히 코르츨라 지역은 최고 수준의 레드, 화이트 와인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와인애호가나 감정가들 사이에서 유명하다.



코나블레 지역의 자수제품은 두브로브니크 지역의 여성이 입던 전통복장의 가장 기본적인 장식요소로 보디스나 소매에 많이 적용되었다. 코나블레 지역의 많은 농가가 누에고치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실크를 생산하게 된 뒤로, 실크사를 사용하여 자수를 많이 놓았고, 천연재료를 이용해 염색을 하기도 했다. 세밀하고 대칭적인 기하학 문양이 다양한 형태로 수놓아져 있으며, 주로 금색 테두리가 둘러진 빨강, 검정, 어두운 녹색의 무늬를 많이 사용한다. 도미니크 수도원의 계단에 보면 코나블레의 전통의상을 입고 열심히 책갈피, 손수건, 테이블 보에 자수를 놓고 있는 여성들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도미니크 수도원 계단 근처에 있는 석조공의 공방에는 다양한 기념품이 판매되고 있다. 가고일, 올드타운 내의 역사적 건물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마스케론(Maskerons), 크로아티아 전통 장식인 꼬인 끈, 십자가, 보루 모형, 그리고 올리브오일을 저장할 때 사용했으나 오늘 날에는 화분으로 많이 사용되는 돌로 만든 항아리가 있다. 두브로브니크의 햇살을 품은 작은 십자가 팬던트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건강한 지중해식 음식의 기본이 되는 올리브오일은 크로아티아 남부에서 가장 많이 생산된다. 금빛을 띠는 노란색에 독특한 향과 풍부한 맛을 자랑하는 올리브 오일은 특히 크로아티아의 건강한 땅에서 친환경적으로 자란 재료로 만든 음식의 질을 한층 더 끌어올린다. 자연재료와 향기로운 허브, 약초, 시트러스 과일을 사용한 독특한 화장품도 가족과 친구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 에센스 마사지 오일에는 라벤더, 로즈마리, 꿀, 레몬과 장미의 지중해 향기가 가득하다. 저온압축한 핸드메이드 비누는 올리브, 팜유, 아몬드유, 산양유, 에센스 오일, 으깬 아몬드 등의 자연재료로 만들어 사용할 때마다 자연의 건강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프란체스코 약국에서 만들어지는 화장품은 여전히 200년 전과 동일한 제조법으로 만드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화장품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장미, 로즈마리, 라벤더 향수와 꿀드크림(왁스와 아몬드 오일), 장미오일로 만든 장미크림, 로즈마리 크림, 아몬드 로션으로 만든 수분 크림, 코코아버터와 지중해 오렌지로 만든 주름크림, 왁스와 바닐라로 만든 립밤이 유명하다.

예술작품, 그림, 조각, 유리공예, 도자기 또한 여행을 기념하기에 좋은 물건이다. 두브로브니크의 거리에선 크로아티아 출신의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갤러리가 많다. 그 곳에서 원본이나 인쇄된 그림을 구입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갤러리의 관계자들은 작품을 합법적으로 해외로 반출하는 절차를 잘 알고 있어 구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초코렛이 주는 기쁨! 크로아티아 초코렛 상품도 훌륭한 맛을 자랑한다. 바야데라(Bajadera), 그리오테(Griotte) 초코렛은 다양한 맛의 초코렛과 다크초콜렛으로 유명하다. 크로아티아 산임을 증명하는 품질마크가 붙어있는 제품은 초코렛 전문 상점이나 기념품가게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크로아티아에서 넥타이가 처음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17세기 크로아티아 군이 프랑스에 원군을 갔을 때, 눈에 잘 띄는 스카프를 목에 둘러 매듭을 만들었다. 이후, 파리에서 크라바테(Cravate, 프랑스어의 Croate의 발음)라는 이름으로 엄청난 패션 아이템으로 사랑 받았다. 낮은 계급의 군인의 스카프는 거친 린넨으로 만들어졌고, 장교들은 실크와 부드러운 면으로 만들어진 스카프를 착용했다. 넥타이 혹은 크로아티아 어 Kravata에 얽힌 이야기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크로아티아 무늬와 현대적 패턴의 최신 디자인이 가미된 최고급 넥타이를 크로아티아샵(Croata Shop)이나 울드타운 내 다른 넥타이 가게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 어디서 수영을 할까

관광객으로 가득한 올드타운을 거닐다가 두브로브니크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수영을 하는 것만큼 기분전환이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제일 유명한 해변은 반예비치로 올드타운과 로크룸이 한눈에 보인다. 이 자갈해변은 아름다운 전경뿐만 아니라 카약, 패러글라이딩, 바나나 보트와 같은 다양한 해양스포츠로도 인기가 많은 곳이다. 반예비치와 비슷하게 올드타운과 로크룸이 보이는 또 다른 해변은 성야곱비치이다. 반예비치보다 덜 붐비는 이 자갈해변은 해변과 같은 이름을 가진 오래된 수도원이 바로 근처에 있다. 올드타운의 반대편인 바빈쿱(Babin Kuk)에는 코파카바나(Copacabana)와 차바(Cava) 자갈해변이 있다. 코파카바나는 해양스포츠를 찾는 가족단위의 여행객이 많이 찾는 반면, 차바는 카테일과 점심식사를 함께 즐기기에 더 좋은 장소이다. 라파드 지역에는 우발라 산책로 바로 옆에 우발라(Uvala) 모래해변이 있다. 덕분에 주변에는 많은 카페와 식당, 그리고 소풍몰이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솔리투도비치(Solitudo)도 있는데, 붐비는 해변을 피해 여유롭게 일광욕을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만한 해변이다. 그 옆으로는 애완동물과 함께 해수욕을 즐길 수 있는 해변이 이어진다. 두브로브니크 외곽지역에는 엘라피티 군도, 오라사츠(Orašac)의 하와이비치(Hawaii Beach)가 있는데 이 해변 역시 카페와 피자집이 주변에 많이 있다. 그 외에도 벨리키 잘리(Veliki Žali), 자툰(Zaton), 브르세치네(Brsečine), 트르스테노(Tršteno), 슈티코비차(Štikovica) 해변이 가깝게 있으며, 마음에 드는 장소가 있으면 차를 잠시 멈추고 맑고 깨끗한 바다로 바로 뛰어들 수 있는 작은 해변이 셀 수도 없이 많이 있다.

마지막으로 섬을 좋아하고, 일광욕과 모래사장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엘라피티 군도가 딱 알맞은 장소이다. 시판은 대부분이 자갈해변이 많은 반면, 콜로체프와 로푸드는 모래해변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천국이다. 그 중에서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큰 모래해변은 로파드에 있는 쉰(Sunj)이다. 이곳에 있는 동안 음식과 음료는 큰 비치 바에서 서비스된다. 평온함과 조용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완벽한 또 다른 장소가 있다. 바로 올드타운과 마주보고 있는 섬, 로크룸에는 여유와 자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장소, 바로 누드비치가 있다. 하지만, 수영복을 벗고 싶지 않다면, 선착장 옆의 포트토츠비치와 섬 내부에 있는 사해나 해변에 있는 큰 바위를 중에 마음에 드는 장소를 선택하면 된다. 만약 수영을 잘 못하는 사람이거나 어린이가 있다면, 파도가 없고 물이 얇은 사해를 추천한다. 결과적으로 어디를 가든 깨끗한 바다와 엄청난 풍경을 만날 수 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이다.



# 어디서 액티비티를 즐길까

올드타운의 성벽을 등 뒤로 하고 로크룸이나 베티나 동굴(Betina Cave)로 카약을 타고 갈 수도 있고, 두브로브니크의 바다 밑을 탐험할 수도 있다. 바다 깊숙히 조용하고 미스터리한 세계로 들어가면 보존되고 있는 바다 아래의 고고학적 현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몇몇의 해변에 있는 해양스포츠센터나 다이빙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쉽게 참가가 가능하다. 라파드의 바빈콕, 라파드 만, 고스피노 폴레(Gospino Polje)에 있는 코트에서 테니스를 치거나, 뜨거운 여름 날, 가까운 바다에 뛰어들어 여유를 즐기며 재충전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수영보다 더 많은 액티비티를 원한다면, 두브로브니크의 해수욕장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옵션을 찾으면 된다. 페들보트나 제트스키를 빌려 근처의 작고 예쁜 만을 둘러보거나, 바나나보트나, 워터스키, 윈드서핑으로 두브로브니크의 바다를 만끽할 수 있다.

모험가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라면, 필레게이트에서 고리차 스베토가 블라하 언덕(Gorica Svetoga Vlaha)에 있는 작은 성블라이세 성당까지 걸어보자. 매년 성블라이세 축제의 마지막은 기발을 탄 긴 행렬의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며 끝난다. 언덕에서 보이는 올드타운과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가 주는 풍경을 한 눈에 담을 수도 있다.

만약 플로체에 있는 5성급 호텔에서 머무르고 있다면, 스벤티 야코브(Sveti Jakov) 지역에서의 아침조깅이나 산책을 놓치지 않기 바란다. 일몰 시간에 호텔로 돌아가 호텔의 웰니스 센터에서





여유를 즐기면서 마사지도 받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피부관리도 받을 수가 있다.

성벽에 올라보자. 2km 길이의 긴 산책은 올드타운과 활짝 열린 바다가 보여주는 풍경은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라파트의 해변 산책로는 초겨울의 전경도 매우 인상적이다. 라파트 만에서 넵툰 호텔까지 걸을 수 있는 산책로의 묘미는 바위에서 내려다보는 사진 같은 풍경과 등대이다. 이후에는 바빈콕과 코파카바나 비치, 더 멀리로는 해안을 따라 만들어진 오르산 세일링 클럽(Orsan Sailing Club)까지 이어진다. 이 클럽에서는 시원한 주스나 한잔의 커피를 마시며 쉬어갈 수도 있고, 클럽식당에서 멋진 식사를 할 수도 있다.

보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올드타운과 올드타운을 둘러싸고 있는 드넓은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스프리산에 올라볼 것을 권한다. 걸어서 혹은 케이블카로 올라갈 수 있는데, 크로아티아 독립전쟁 박물관이 있는 임페리얼 보루는 놓쳐서는 안 될 명소이다. 모험을 좋아한다면 코나블레의 한적한 시골이 좋은 추천장소가 될지도 모른다. 이곳에서는 승마나 ATV를 탈 수가 있는데 ATV를 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이 지역을 알아가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11km 길이의 '블루루트'는 올리브과수원, 코나블레의 가파른 해안길을 따라 나있는 나무숲은 보다 장대한 자연의 한 장면을 선사한다. 블루루트를 완주하고 허기가 진다면 스모크햄, 치즈 그리고 와인을 꼭 맛보길 권한다.

그 외에도 두브로브니크에서 잊지 못할 휴가를 만들기 위한 액티비티로는 차브타트의 낮낚시와 밤낚시, 대어보트를 이용한 세일링, 스톤염전에서 소금수확체험 코나블레의 지프차 사파리, 물레트 섬 국립공원 자전거 횡단 등이 있다.

여유로운 카약투어 또한 두브로브니크에서 인기가 많은 액티비티 중의 하나이다. 특히 바다에서 보는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을 보고 싶다면 관촬은 선택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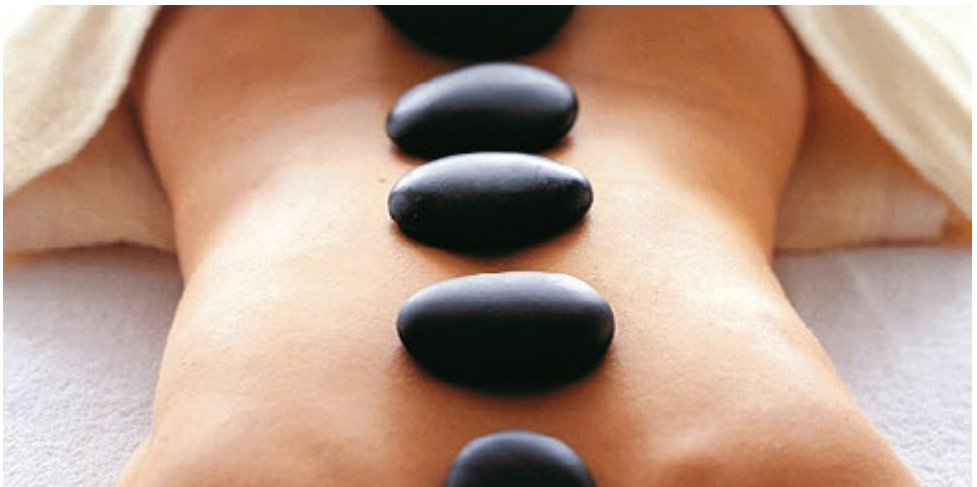
# 웰니스

몸과 마음의 완벽한 조화를 위한 환경

수중운동, 헬스, 수영 등을 통해 좋은 기분을 느끼고, 우리의 몸에 힘과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지중해의 향기를 머금은 바람을 느끼며 즐기는 해안가산책 끝에, 호텔을 찾은 손님들은 고대문명의 웰니스 비법, 동양의 숨결과 에너지 순환을 위한 수압마사지를 통해 몸과 마음의 활기를 되찾는다.

항상 최고의 것만 찾는 사람이라면 이곳에서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두브로브니크, 건축물과 자연의 조화, 평온함과 세련됨, 그리고 현대도시의 박동이 주는 완벽한 조화를 맞게 될 것이다.

여행지 두브로브니크의 위상은 양질의 호텔로 그 위상을 높혀가고 있다. 40개의 호텔 중, 그 중 절반인 20여 곳이 5성급 호텔이며, 최신 트렌드에 따라, 각 호텔은 가장 현대식의 웰니스와 스파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두브로브니크의 호텔 웰니스 센터는 휴식을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완화를 위해 최적화시킨 높은 수준의 서비스로 크로아티아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많은 상을 휩쓸고 있다. 특히, 자연적 요소, 미니멀한 실내디자인, 그리고 터키석의 빛을 닮은 바다와 함께 세련되고 평온한 분위기를 만드는 음악 선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냉탕과 온탕, 터키식, 핀란드식, 기타 다른 목욕법, 그리고 동양의 다양한 마사지법과 분위기로 몸과 마음 그리고 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 되찾은 여유로 다시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



# 아이를 위한 액티비티

어린 자녀와 함께 두브로브니크를 방문할 계획이라면 라파드나 바빈쿱 지역에 숙소를 정할 것을 권한다. 이 지역에서는 바닷가 산책 등 실외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은 편이다. 라파드 만의 즈보니미르양 산책로(Šetnica Kralja Zvonimira)는 보행자 전용 구역으로 아이들을 위한 작은 놀이터와 아이스크림이나 팬케익을 먹을 수 있는 장소도 가까이에 있다. 산책로를 따라 오락센터가 있어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큰 영화관 '시네스타(Cinestar)'에서는 정규 혹은 특별 상영되는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라파드 만에는 작은 물놀이 기구가 있는 아름다운 자갈해변이 많이 있다. 라파드 해변을 따라 걸다보면 또 다른 초록 오아시스, 바빈쿱 지역과 이어진다. 이 곳에서는 공놀이, 자전거타기, 탁구, 집중력을 테스트 할 수 있는 미니골프를 하고 놀기에 좋다. 바빈쿱과 몇 분 떨어지지 않은 곳, 반도의 반대쪽에는 코파카바나 비치에 있는데 이곳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 기구가 바다 위에 떠있다.

올드타운의 안에서는, 성 요한 보루 내부에 있는 아쿠아리움에서는 아드리아 해의 동식물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시킨다. 두브로브니크 자연사 박물관에는 살아있거나 박제한 10여개의 동식물 컬렉션과 견본이 아이들을 관심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 자연사 박물관은 주기적으로 주제가 있는 교육적인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

수 세기동안 아이들은 올드타운의 거리에서 특히, 대성당,



성블라이세 성당 앞과 도미노 거리에서 축구를 하며 놀았다. 성로코 성당의 외벽에는 1597년에 만들어진 라틴어 명판이 있는데, 이 명판에는 ‘공을 가지고 노는 자여, 너도 영원히 사는 이는 아닐지니’라는 뜻의 경고가 새겨져있다.

올드타운에서 배로 1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로크롬은 가족과 함께 여행은 이들에게 안성맞춤인 장소이다. 사해 호수(Mrtvo more)에서 수영을 즐기고, 식물원에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공작새와 수많은 희귀식물 사이로 산책을 즐길 수도 있다. 로크롬의 역사에 대한 멀티미디어 전시회와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TV 시리즈 ‘왕좌의 게임’ 촬영장소도 아이들에게 즐거운 장소가 될 것이다. 올리브나무 그늘의 잔디에 앉아 소풍도 즐기고, 아이들은 공작새, 토끼, 거북이와 함께 어울려 놀 수도 있으며 당나귀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볼 수도 있다. 공원의 운동기구로 온 가족이 가볍게 운동을 즐겨보는 것도 좋다.

케이블카로 스르지산 정상에 올라가보거나 두브로브니크 윗편, 보산카의 허니밸리(Medena Dolina)에서 하루를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곳에서 아이들은 좋은 공기를 마시며 조랑말을 타기도 하고 여러 가족을 만날 수 있다. 더 오래 모무르고 싶다면 코나블레에서 승마, 사이클링, 트레킹, 그리고 두 곳의 아드레날린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를 추천한다. 두브로브니크 주변지역의 여행으로는 엘라피티 군도, 특히 유명한 모래해변, 순이 있는 로푸드나 국립공원이 있는 물레트도 좋다. 깨끗하고 푸른 바다, 맑은 햇살이 다가오는 겨울을 버틸 수 있도록 당신을 건강함과 에너지를 가득 채워준다. 아이들의 첫 수영, 바다로의 첫 다이빙, 카약의 노젓기의 추억이 가득 담긴 사진을 꺼내보며 두브로브니크에서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당연히 아이들은 당신에게 물을 것이다. “우리 두브로브니크 언제 또 가요?”





# 두브로브니크의 축제

## 12 - 1월

### 두브로브니크 겨울축제

두브로브니크 겨울축제는 올드타운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축제며, 시간이 지나도 변치않은 아름다움을 극대화 시키는 화려한 조명이 아름다운 축제이다. 여러 오락 프로그램, 다채로운 전통 요리, 고대풍습이 어우러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두브로브니크가 가진 예술적 다

## 2월

### 성블라이세 축제

972년 두브로브니크의 수호성인, 성블라이세의 축일을 축하하기 위해 시작된 이 축제는, 이제 두브로브니크의 대표적인 축제이기도 하다. 이 시기에 열리는 성당과 콘서트, 전시회, 책소개 및 연극공연은 모두 수호성인에게 헌정하기 위한 것이다. 성블라이세의 동상은 성벽이

동 다양한 성격의 분위기가 한데 어울려있다. 두브로브니크 카니발에서 올드타운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보길 바란다.

## 3월

조용! 두브로브니크와 영화가 사랑에 빠졌다.

FB Tišina Molim 조용히 하세요

지난 해 처음 개최된 두브로브니크 영화 축제는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영화촬영의 역사를 증강현실에서 구현한 전시회가 관객들과 현지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모든 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이 전시회를 통해 소개된 지난 100년간의 두브로브니크 올드타운과 영화문화의 관계는 방문객 모두에게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다. 첫회의 성공적인 흥행의 결과로 2018년에도 재미있고 놀라움이 가득한 이 축제는 계속된다.

## 4월

### 아카펠라(달마시아 음악축제)

클라파(Klapa)와 카펠라(Cappella), 두 단어를 합쳐서 이름 지은 이 축제는 국내 최고의 크로아티아 전통보컬그룹이 한데 모이는 축제이다. 두브로브니크에서만 열리는 수많은 축제들과 다르게 전국에서 만들어지는 음악으로 꾸며지는 아카펠라 축제는 크로아티아 민속음악의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공헌하고 있는 축제이다.

## 2018년 4월

### 두브로브니크 음악의 봄

은 두브로브니크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주최하는 새로운 음악공연이다. 4월에 열리는 이 클래식 사이클공연은 두브로브니크의 문화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다.

## 4월

두브로브니크 페스티와인 관광객이 많은 두브로브니

크와 두브로브니크-네레트바(Dubrovnik-Neretva) 카운티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지역 와인 제조자들에게는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매년 수 천명의 관광객들이 와인셀러를 방문하는데, 그 중 많은 수가 와인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도이다. '와인 관광네트워크, WiNe' 프로젝트의 주요 행사로 4월에 두브로브니크에서 열리는 두브로브니크 FestiWiNe가 있다. 이 축제에서는 100 곳이 넘는 와인 제조사가 자신이 만든 와인을 수많은 와인 전문가와 관광객에게 소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이 지역의 좋은 품질로 만든 고품질의 와인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와 마케팅에 힘쓰고 있다.

## 4월

### 두브로브니크 하프마라톤

이 행사의 매력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매력적인 두브로브니크 그 자체, 그리고 제한된 수의 선수들이 두브로브니크 최고의 명승, 성벽 위를 달리는 2K 경주 또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21.1km의 하프마라톤 코스는 플로체에서 시작하여 필레를 지나 그루즈의 칸타피그(Kantafig)까지 이어진다. 마리아 코마츠(Marina Komolac)에서 반향하여 골인지점인 스트라둔까지 다시 달린다.

'레이스, 그 이상'의 모든 아래 기획된 이 행사는 그저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가 아니라, 수호성인 성블라이세의 가호와 두브로브니크의 역사적 유적의 응원 아래, 달리기를 통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의 홍보하고 있다.

## 6월

### 바로크음악 사이클, 올란도 푸리오소

올란도 푸리오소(Orlando Furioso)는 두브로브니크 심



양성을 재조명 할 수 있는 행사이다. 이 지역의 스타, 디노머린(Dino Merlin)이 기획하는 12월 31일 새해전야파티에서는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들이 스트라둔의 아름다운 야외무대에 등장한다.

나 성문 위에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의 손에는 그가 가호하는 두브로브니크가 들려있다.

## 2월

### 두브로브니크 카니발

우리의 조상들도 재미있게 놀았는데, 우리라고 못할게 있다...라는 속담을 2월의 두브로브니크 카니발에서 자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이 허용되고 사람들은 평소에 몰랐던 새로운 얼굴을 보이기도 한다. 이 축제에서는 농담, 웃음소리, 유포함, 기쁨, 풍자

## 1-2월

### 두브로브니크 페스타

며칠동안 이어지는 이 축제 기간에는 성블라이세의 축일과 두브로브니크 시의 날을 축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포니오케스트라가 기획하여 6월에 두브로브니크에서 열리는 바로크음악 사이클이다.

### 6월 르페티트 페스티벌 두 시어터, 국제소극장축제

이 작은 규모의 축제는 특별하고 독특한 문화행사로, 전 세계에서 모인 예술가들이 자신의 재능을 선보이는 자리이다. 이 축제에서는 매년 신중하게 선택된 작품과 시인, 배우, 무용가 혹은 그 외 장르의 예술가가 무대에 오른다.

### 6월 음악 축제 Ana in Town

주말축제, Ana in Town은 클래식과 크로스오버 음악을 동시에 선보이는 젊은 예술가이자 첼리스트, 안나 루츠네르(Ana Rucner)의 공연이다. 여름이 시작되는 첫 날이자 6월 21일 세계 음악의 날 새벽에 열리는 이 한 상적인 공연은 매우 특별한 공연으로 쓰리 산 정상에서 떠오르는 해를 보며 공연을 즐기는 독특한 경험을 할 수 있다.

### 6-7월 한여름의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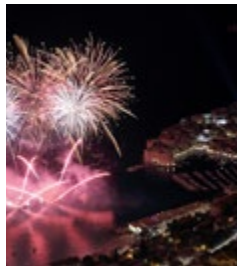
한여름의 장면은 영어로 공연되는 연극축제, 가장 아름다운 무대, 두브로브니크의 로브리에나츠 보르에서 펼쳐진다. 셰익스피어의 가장 유명한 극작품이 영국과 크로아티아의 연극배우의 협연으로 상연된다.

### 6-7월 두브로브니크 국제오페라축제

이 축제는 20세기 전반기, 유럽과 전세계의 오페라 하우스의 메인 성악가 중 한 명

이었던 테너 티노 파티에라(Tino Pattiera)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티노 파티에라 헌정 국제 오페라 아리야 축제는 이 도시에 또다른 영구적 오페라 공연을 만들고, 두브로브니크의 오페라 관련 기반을 완성하여 훌륭한 작곡가가 만든 아름다운 오페라를 관객들에게 선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7-8월 두브로브니크 주변지역의 여름행사 프로그램



오랜 시간을 거쳐온 지중해의 음울과 전통민속문화를 관광객들에게 소개하기위해 지난 몇 년 간 두브로브니크 시와 두브로브니크 관광청은 음악,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관광객들은 전통민속축제와 휴일에 진행되는 특별프로그램을 통해 달마시아 전통 아카펠라 공연, 민속공연, 클래식 음악 콘서트, 크로아티아 음악공연 등 약 30개의 공연을 열라피티 군도, 자른, 오라사츠에서 즐길 수 있다.

### 7-8월 두브로브니크 여름 축제

두브로브니크 뿐만 아니라 크로아티아의 대표적인 주요 문화축제로 자리잡은 두브로브니크 여름축제는 1950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7월 10일에서 8월 25일까지 이어진다.

### 7-8월 워터폴로 와일드리그

오늘날 두브로브니크에서 열리는 워터폴로 챔피언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아마추어 수구 리그이다. 매년 7월 초면 40개가 넘는 팀의 선수들이 물 속으로 뛰어들어 챔피언 타이틀을 위한 경쟁을 시작한다.

### 8월 시판 여름영화학교

매년 여름, 시판 섬에서는 '시판여름영화학교'라는 이름으로 영화학교와 영화축제가 함께 열린다. 이 행사는 영화는 물론이고 독일,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 심지어 영국에서까지 찾아오는 프로그램의 참가자, 축제 방문객으로 국제적인 축제의 성격 가지게 되었다. 두브로브니크 시의 지하 아래, 8월 4일에서 10일까지 시판스카 루카(Sipanska Luka)에서 열린다. 이 축제기간에 별도로 선정된 10개의 영화를 상영한다. 겨울에는 다소 폐쇄적인 달마시아의 섬이지만, 여름동안에는 영화를 통해 전세계와 교류하는 장소가 된다. 덕분에 시판의 학생들은 자기 또래의 유럽과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 함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한다.

7-9월 음악축제 늦여름의 두브로브니크 9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이 새로운 축제는 두브로브니크 여름 축제가 끝나고 유네스코의 도시, 두브로브니크에 계속해서 음악이 흐르도록 하기 위해 두브로브니크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기획한 축제이다.

### 9월 성블라디세 성당 알 크로아티아 잼-마말레이드 축제

문화, 유산, 전통을 보호하는 분위기에 맞춰 성블라디세 성당 앞, 스타트란에서 열리는 이 축제는 크로아티아의 각 지역과 주변 국가의 전통복장을 입은 참가자들



이 직접 가져온 제품을 관광객에게 판매하고 무엇보다 한층 더 제품의 맛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두브로브니크의 식당 관계자들에게 자신의 상품을 선보이는 행사이기도 하다.

### 9-10월 가을뮤직버라이어티

두브로브니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가을 공연이 가을 뮤직버라이어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신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축제는 다양한 음악공연을 소개하고 있다.

### 10월 ITF 남자 퓨처스 대회 ITF 여자 서킷 대회

두브로브니크에서 열리는 가장 이름있는 국제 스포츠 행사 중 하나이자 세계적으로 이름있는 크로아티아 출신 유럽 테니스 선수들의 초기 경력에 대부분 올라 있는 대회로, 젊은 세대의 선수들에게는 수많은 참가자와 스포츠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명망있는 테니스 토너먼트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 10월 굿푸드페스티벌

두브로브니크 관광청이 기획한 이 독특한 프로젝트는 새롭고 흥미로운 요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다. 10월의 가을, 관광객은 물론이고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아 정식 관광상품이 된 행사에서는 이 지역 전통 음식,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지역에서 생산되는 와인 시음, 저 워크샵, '유명 셰프와 저 녀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벤트, 두브로브니크의 대표 식당의 유명 메뉴를 배울 수 있는 워크샵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12-1월

**두브로브니크 겨울 축제**  
 두브로브니크 겨울 축제와 광범위하고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축제의 도시, 두브로브니크는 올드 타운과 주변지역을 무대료한 재미, 문화, 흥미거리, 요리, 예술로 가득찬다. 페스 크라리아(Peskarija), 스트라돈, 필레, 라자리티와 같은 독특한 문화유적과 역사적인 장소는 홀리데이 일루미네이션으로 지금까지와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아이들과 함께 스케이트를 타고, 크리스마스 이야기쇼, 몸을 녹여 줄 따뜻한 밀드와인과 크로아티아식 도넛 등 축제는 수많은 연말악속의 구실을 만들어준다. 극장, 박물관,

갤러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두브로브니크 전통 디저트를 만드는 방법을 배워볼 수도 있다.

### 재림절

두브로브니크 겨울 축제의 프로그램 중 하나, 두브로브니크의 재림절은 재림절 초에 불을 밝히면서 시작된다. 두브로브니크의 특별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12월에 더욱 빛을 발한다. 올해의 크리스마스 마켓은 두브로브니크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 스트라톤에서 열린다.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는 장인이 만든 수공예품, 크리스마스 장식품, 전통 크리스마스 케이크와 디저트를 구입할 수 있다.

옛날부터 크리스마스 이브와 새해 전날에 그랬듯이 두브로브니크 전통 콜렌다(캐롤)를 부르면서 즐거운 연말연휴를 보내길!

### 새해전야

두브로브니크를 찾은 관광객들은 12월 31일 새해 전날의 아침부터 시작되는 화려

한 음악프로그램을 즐기며 새해 2018년을 맞이한다. 총 3일간 이어지는 새해맞이 프로그램은 모두가 그 즐거움을 빠져줄 수 있을 것이다. 새해는 전통의 새해 10km 달리기로 시작하여, 정오에는 골과 샴페인에 있는 두브로브니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콘서트로 새해를 연다.



# 안내

## 두브로브니크 관광청

주소: Brsaljje 5  
 tel.: +385 20 312 015  
 fax.: +385 20 323 725  
 e-mail: info@tzdubrovnik.hr  
 www.tzdubrovnik.hr

## 관광안내센터필레

주소: Brsaljje 5  
 tel.: +385 20 312 011  
 e-mail: ured.pile@tzdubrovnik.hr

## 그루즈

주소: Obala Ivana Pavla II., br. 1  
 Tel/Fax.: +385 20 417 983  
 email: ured.gruz@tzdubrovnik.hr

## 라파드

주소: Masarykov put 2  
 Tel/fax.: +385 20 437 460  
 e-mail: ured.lapad@tzdubrovnik.hr

## 자톤

주소: Zaton Veliki 2  
 tel./fax.: +385 20 891 230  
 e-mail: ured.zaton@tzdubrovnik.hr

## 로푸드

주소: Obala Iva Kuljevana 12  
 tel/fax.: +385 20 322 322  
 e-mail: ured.lopud@tzdubrovnik.hr

## 시판

주소: Luka b.b., Luka Šipanska  
 tel/fax.: +385 20 758 084  
 e-mail: ured.sipan@tzdubrovnik.hr

## 주요전화번호

안내 18981  
 전화번호 안내 11888  
 국제전화번호안내 11802  
 일기예보 및 교통정보 18166  
 크로아티아 오토클럽 1987  
 길안내 1987  
 견인서비스

+385 20 331 016  
 +385 20 312 266

응급상황 112  
 크로아티아 산악조난 구조대  
 +385 91 112 92 00

경찰 192  
 소방 193  
 구급차 194  
 두브로브니크 병원

+385 20 431 777  
 돔 크드라블라 (종합병원)  
 +385 20 416 866

경찰 헬리콥터

+385 20 443 333  
 해양경찰 +385 20 443 555  
 교통경찰 +385 20 443 666  
 세관 +385 20 772 000  
 두브로브니크 공항

+385 20 773 377  
 버스 터미널 060 305 070  
 향만관리사무소  
 +385 20 418 988

향만공사 +385 20 313 333  
 ACI 마리나 두브로브니크  
 +385 20 455 020  
 리베리타스 - 시내버스  
 +385 20 357 020

야드롤리니야 (페리서비스)  
 +385 20 418 000

두브로브니크 시청  
 +385 20 351 800  
 두브로브니크-네레트바 카운티  
 +385 20 351 400  
 카운티 관광청  
 +385 20 351 182  
 여행자관리소  
 +385 20 351 048

## 두브로브니크-네레트바카운티 관광청

주소: Šipčine 2  
 tel.: +385 20 324 999  
 fax.: +385 20 324 224  
 e-mail: info@visitdubrovnik.hr  
 www.visitdubrovnik.hr

## 공휴일

1월 1일 - 신정  
 1월 6일 - 예수공현축일  
 2018년 4월 - 부활절  
 2018년 4월 - 부활절 월요일  
 5월 1일 - 노동절  
 5월 31일 - 성체축일  
 6월 22일 - 파시스트 저항일  
 6월 25일 - 자주독립일  
 8월 5일 - 추수감사절, 크로아티아 수호인의 날  
 8월 15일 - 성모승천일  
 10월 8일 - 독립기념일  
 11월 1일 - 만성절  
 12월 25일 - 성탄절  
 12월 26일 - 성스테판의 날

## 상점 운영 시간

대부분의 가게는 연중 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8시에서 저녁 8시까지만 운영되고 있다. 여름에는 거의 모든 가게가 저녁 9시까지 문을 닫지만, 올드타운 내의 상점, 특히 기념품 가게는 늦은 밤까지 영업한다. 대다수의 가게는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지만, 올드타운의 기념품 가게는 예외적으로 문을 열기도 한다. 일요일에 대부분의 식당은 오후 2시까지만 영업하고, 병원과 공항, 버스터미널, 항구 내에 있는 가게나 키오스크, 베이커리 중에는 일요일에도 영업을 하는 곳이 많다.

그루즈의 야외시장은 오전에만 운영하고 그 중에서 꽃가게는 오후까지도 장사를 계속한다. 올드타운 내의 시장은 정오에 대부분의 장사가 끝나고, 성수기에 기념품을 파는 가판대는 저녁 늦게까지도 찾아볼 수 있다. 두브로브니크 지역의 주유소는 오전 7시에서 밤 10시까지, 여름에는 밤 12시까지 운영한다. 쿠파리(Kupari)와 코모라츠(Komolac)의 주유소 중에는 24시간 운영되는 곳도 있다.

## 편집자 주

Dubrovnik Rivier Info 책자에 실린 정보는 좋은 의도로 수집된 것이므로, 편집자는 정보의 정확성, 후속 수정에 대한 책임이 없고, 또한 잘못된 인쇄와 부정확한 정보로 인한 재인쇄 비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

### 장애인을 위한 정보



올드타운 내의 모든 공공시설과 정부기관은 장애인의 출입이 가능하다. +385 98 915 2834로 연락하면, 박물관, 성당, 그 외 기타 시설의 계단을 이용하기 위한 운송수단을 예약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운송수단은 표준 사이즈의 휠체어라면 모두 이용이 가능하고, 요청에 따라서는 휠체어를 대여할 수도 있다. 운송서비스는 무료이지만 대신 두브로브니크 다발성경화증모임에 기부할 수도 있다. 서비스에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385 20 425 0860로 연락하면 된다.

Dubrovnik Multiple Sclerosis Society 두브로브니크 다발성경화증 모임  
e-mail: dms\_dubrovnik@sdmsh.hr





# GOOD FOOD

Festival

Dubrovnik 2018

18 - 21 OCTOBER



## TASTE THE BEST OF OUR LOCAL CUISINE!

**Don't miss!**

dinner with a famous chef | festival menus | visiting cuisines  
traditional dishes | tastings | workshops | presentations | a food fair  
gastro tours | entertainment | live music



Turistička zajednica  
grada Dubrovnika  
Dubrovnik  
Tourist Board

[www.tzdubrovnik.hr](http://www.tzdubrovnik.hr)